

발 간 등 록 번 호

51-6110000-001527-01

요약보고서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발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오정은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발전 방안 연구

2016. 12

요약보고서

책임연구원: 오정은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공동연구원: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경미 (IOM이민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우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원)

반정화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차보연 (IOM이민정책연구원)

송영호 (고려대학교)

김지훈 (서울시립대학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서울특별시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서울특별시장 귀하

이 보고서를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발전 방안 연구” 과제의 요약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책임연구원: 오정은(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목 차

I.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내용	2
4. 연구방법	3

II.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특성

1.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발전과정	5
2. 서울 서남권과 타지역 중국동포 밀집지역 특성 비교	6
가.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6
나. 서울 광진구 자양4동	8
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9
라.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매산동	11
3. 소결	12

III. 국내외 이주민 밀집지역 발전사례 분석

1. 국내 이주민 밀집지역	15
가. 서울 서초동 서래마을	15
나. 인천 차이나타운	16
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17
2. 국외 이주민 밀집지역	19
가. 일본 오사카 코리아타운	19
나. 일본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20
다. 프랑스 파리 13구	22
라. 독일 베를린 노이퀼른구	23
마. 벨기에 브뤼셀 몰렌베이크	24
3. 소결	25

IV.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주민 의견

1. 중국동포 단체 임원 의견: 포커스그룹 미팅	27
가. 조사방법	27
나. 조사결과	27
2. 중국동포 정책 전문가 의견: 정책워크숍	28
가. 조사방법	28
나. 조사결과	28
3. 일반 거주민 의견 1: 설문조사	29
가. 조사방법	29
나. 조사결과	30
4. 일반 거주민 의견 2: 심층면접조사	31
가. 조사방법	31
나. 조사결과	31
5. 소결	33

V.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자산

1. 인적자산	35
가. 인구현황	35
나. 인구변화 동향	37
다. 중국동포 체류자격	38
라. 중국동포 관련 단체	39
2. 산업자산	39
가. 중국동포 관련 산업	39
나. 중국동포 밀집지역 상권	43
3. 문화자산	44
가. 문화자산 현황	44
나. 관광여건	44
다. 문화관광 여건 시사점	45
4. 공간자산	45
가. 주요 교통망	45
나. 광역적 공간 자산	45
다. 서남권 용도지역 현황	45
5. 지역발전을 위한 자산 활용 방안: 참여형 지역관리	46

6. 소결	48
가. 낙후화 가능성과 발전가능성	48
나. 지역자산 SWOT분석	49

VI.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맞춤형 사업

1. 지역주민 생활안정 사업	51
가. 기본방향	51
나. 맞춤형 사업	51
2. 공공질서 유지 및 생활안전 환경구축 사업	53
가. 기본방향	53
나. 맞춤형 사업	54
3. 차세대 교육지원 사업	55
가. 기본방향	55
나. 맞춤형 사업	56
4. 선주민과 이주민 갈등 해소 사업	57
가. 기본방향	57
나. 맞춤형 사업	57

VII.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장단기 발전 방안

1. 기본방향	59
가. 비전과 정책목표	59
나. 기본원칙	60
2. 추진전략	60
가. 중점과제 수행을 위한 3단계 전략	60
나. 세부사업 수행을 위한 연도별 로드맵	61

I.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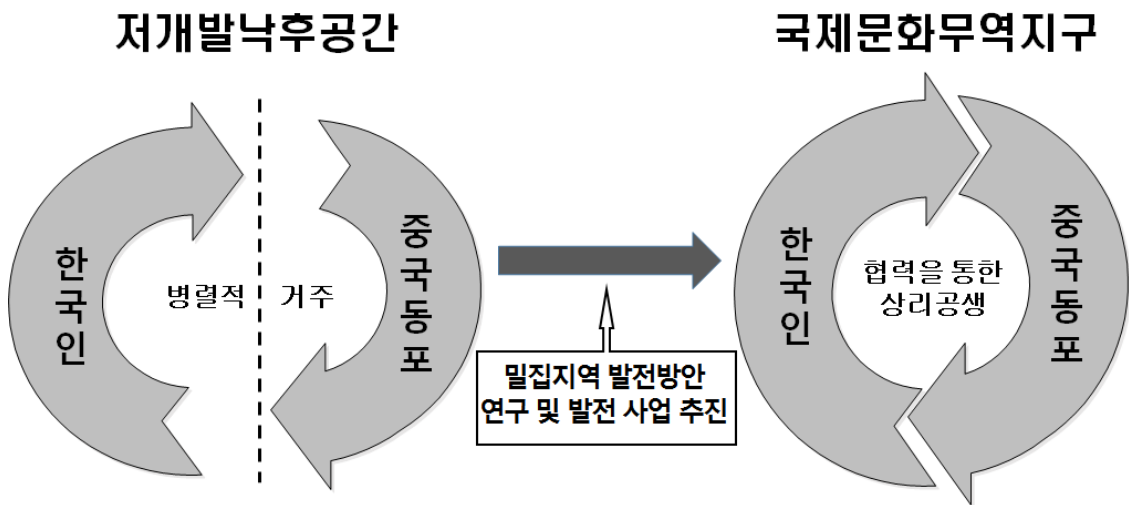
1. 연구의 필요성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등 서울 서남권 일대에 중국동포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역 낙후에 대한 우려가 커짐
 - 한국인 선주민들이 중국동포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고성방가 등 범질서 위반을 불평하면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 증가
 -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한국인 선주민의 지역 이탈과 중국동포 이주민 지역유입이 가속화되어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은 중국동포들만 생활하는 고립된 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 제기
 - 한국인이 기피하는 중국동포 밀집지역에 대한 민간의 투자 감소가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을 서울의 낙후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 제기
 - 서울시에서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낙후화를 예방하고자 수차례 개발사업을 계획하였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 중단
- 서울 서남권 낙후화 우려의 한편에서,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특수성을 잘 활용하면 서울 서남권은 오히려 경쟁력있는 국제문화무역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 중국동포의 이국적 문화를 활용한 지역 특성화 상품 개발 가능성 제기
 - 근면하고 젊은 노동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발전 가능성 제기
 - 한국어와 중국어가 모두 사용되는 언어환경을 활용한 국제문화무역지구로의 발전 가능성 제기
- 서울 서남권 발전계획은 일반적인 도시계획과 달리, 지역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회통합까지 고려하는 지역발전 계획이 요구됨
 -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 이주민 사이에 갈등과 편견 존재
 -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 이주민 사이에 지역의 미래상에 대한 입장차 존재
 -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가 함께 만족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지역발전 발전 계획 필요

2. 연구목적

-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특수성 이해
- 서울 서남권을 한국과 중국의 문물교류 중심지이자 한국인과 중국동포가 상리공생(相利共生)하는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는 정책 제시

〈그림 1-1〉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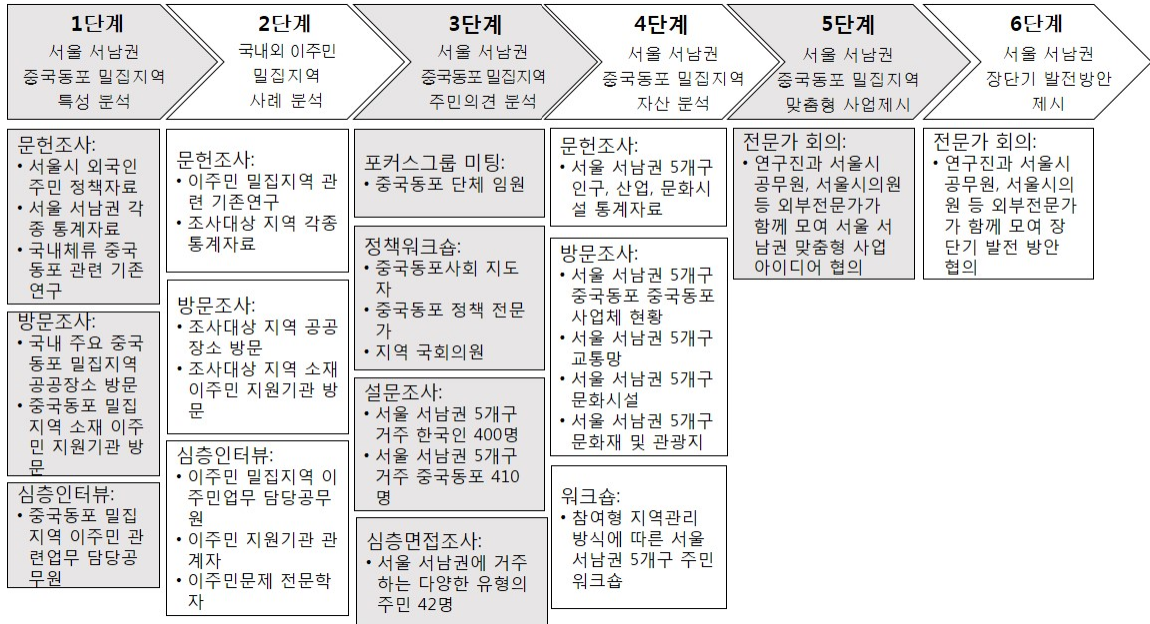
3. 연구내용

- 본 연구는 크게 다음의 여섯 부분으로 구성됨
 -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특성에 대한 분석
 - 국내외 이주민 밀집지역의 발전사례에 대한 분석
 -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 분석
 -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인적자산, 산업자산, 문화자산, 공간자산 등 분석
 -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맞춤형 사업 제시
 -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에서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 이주민이 함께 지역발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서울 서남권 장단기 발전방안 제시
- 여섯 부분의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에서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 이주민이 함께 화합하여 지역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서울 서남권 장단기 발전방안을 제시함

4. 연구방법

- 본 연구 수행 과정에는 문헌조사, 현장 방문조사, 포커스그룹 미팅,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워크숍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사용됨
 - 문헌조사 방법으로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 현황 자료, 서울 서남권 5개구(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의 인구, 산업, 문화생활 등 각종 통계 자료, 중국동포의 국내 입국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연구논문, 중국동포 관련 출입국 정책에 대한 정부보고서, 외국인 밀집현상을 활용한 국내외 지역발전 사례보고서 등 분석
 - 현장 방문조사 방법으로 국내의 주요 중국동포 밀집지역과 국내외 주요 이주민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밀집지역 현장 분위기 파악, 이주민 밀집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지역공무원, 민간단체, 전문학자 등을 만나 현장 이야기 청취
 - 포커스그룹미팅 방법으로 서울 서남권에서 활동하는 주요 중국동포 단체의 임원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고, 서울 서남권 거주 중국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중국동포의 정책수요가 무엇인지 청취
 - 설문조사 방법으로 서울의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등 5개구에 거주하는 한국인 400명과 중국동포 410명 등 810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 설문조사의 질문은 이웃에 대한 인식,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
 - 한국인 대상 설문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무작위 추출에 의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중국동포 대상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중국동포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에 모인 중국동포를 대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중국동포 단체 관계자에게 의뢰하여, 단체를 방문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
 - 워크숍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조사함. 한 가지는 참여형 지역관리 방식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서울 서남권 주민 지역 워크숍으로,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관한 조사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정책워크숍으로 지역 국회의원, 중국동포 문제 전문학자, 국내 중국동포 단체 임원 등 국내 중국동포 문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에 관한 조사임
- 본 연구에 활용된 연구방법을 연구 내용 전개과정에 따라 제시하면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단계별 연구방법



II.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특성



1.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발전과정

○ 중국동포 국내 유입

-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직후부터 국내 친척 방문 형식으로 공식적인 한국 입국 시작
- 친척 선물용으로 가져 온 한약재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약재 보따리상 활동 증가
-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중국동포의 한국 입국 전환기 마련
 - 한국에서 동포 간 화합과 자긍심 고양 목적으로 한국에 연고가 있는 중국동포에게 6개월 여행사증 발급
 - 중국동포들이 친척방문 목적을 넘어 ‘코리아 드림’ 을 꿈꾸며 본격적으로 한국 입국

○ 중국동포 출입국과 취업관련 주요 제도 및 정책 변화

- 친척초청범위 확대(1994): 55세이상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촌 초청 가능
- 연수취업제도(1997): 2년 연수 후 1년 합법 취업(IMF금융위기로 중단 후 2000년 재시행)
- 재외동포법(1999) 제정: 해외동포의 출입국, 체류, 국내 부동산 보유 등에 관한 권리 확대(중국 및 CIS 동포 제외)
- 친척초청범위 확대(1999): 50세이상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후 출국유예조치(2002): 불법체류자 27만6천명의 93%가 자진 신고
- 친척초청범위 확대(2002): 40세이상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취업관리제 도입(2002): 동포들에게만 8개 서비스업종 취업 허용
- 친척초청범위 확대(2003): 30세이상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재외동포법 개정(2004): 재외동포법에 중국동포 및 CIS동포 포함
- 친척초청범위 확대(2004): 25세이상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 도입(2005-06): 불법체류 중국동포의 자진 귀국 지원
- 방문취업제 도입(2007): 무연고 동포들의 방문과 취업 확대(H-2비자). 한국에 최대 4년 10개월 간 체류 가능. 이 제도를 통해 만25세이상 중국동포 대거 한국 이주

- 재외동포비자발급 확대(2013): 60세이상 외국국적재외동포에게 재외동포비자(F-4) 발급확대를 비롯한 재외동포비자 발급요건 완화
- 중국동포들이 서울 서남권 거주를 선호하는 이유
 - 일자리 접근용이: 구로공단이 위치한 덕분에 제조업 노동에 대한 수요가 존재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공단지역에 아파트형공장이 건설되면서 건설인력에 대한 수요 존재 및 전철 등 대중교통에 의한 이동의 편리성
 - 저렴한 주거비: 가리봉동의 쪽방촌, 대림2동의 반지하방 등 저렴한 주거 공간 존재
 - 편리한 부동산 서비스: 대림2동의 부동산소개소들은 중국동포에게 저렴한 월세, 전세 및 자가주택을 안내하면서 중국동포들을 대림동으로 유도
 - 중국동포의 인적 네트워크: 중국동포의 다수가 한국이주 초기에 서울 서남권 소재 친인척 집에서 동거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 서남권에 거주지 마련자신도 서남권에 등지를 트는 경우가 많음
 - 중국동포 밀집지역에 형성된 중국동포를 위한 생활편의시설: 중국동포 밀집지역에 중국동포 구직정보, 한국어교습소, 중국동포를 주 고객으로 하는 가게(병원, 여행사, 환전소, 공인중개소, 노래방과 PC방, 주점 등) 등 생활편의시설 밀집

2. 서울 서남권과 타지역 중국동포 밀집지역 특성 비교

-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내 주요 중국동포 밀집지역에 대한 조사 및 비교 분석 실시
- 대상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매산동 등 네 곳이며, 분석대상 사업은 생활안정사업, 공공질서유지사업, 교육지원사업, 주민통합사업 등 네 분야임

가.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 중국동포 밀집배경
 -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에 성남공업단지를 배경으로 저층 연립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저렴한 주거지 확보 용이
 - 수도권 지하철이 지나가므로 서울을 오가며 일하기에 편리
 -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조성으로 일자리 찾기에 용이
 - 수진1동 중앙시장에 중국동포 운영 점포에서 일자리 찾는데 유리

○ 중국동포 현황

- 2015년에 수진1동의 주민등록인구는 14,897명이며, 외국인주민은 3,996명임. 외국인주민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 즉 중국동포는 3,603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90.2% 차지

○ 중국동포 관련 사업

- 특별히 중국동포에 특화된 조례나 정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2013년 10월 제정된 「성남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중국동포에 적용하면서 사업 수행
-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와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
- 생활안정사업
 - 직업교육: 요리교실, 바리스타교실 및 컴퓨터자격증 취득을 위한 컴퓨터교육 ITQ한글반, 남한산성외국인해설사 양성과정
 - 건강·의료: 분당서울대학병원, 보바스기념병원, 분당차병원, 중앙병원, 정병원 등 5개 종합병원에서 치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한방 등에 대한 외국인 무료진료 실시 및 정서치료가 필요한 다문화가족 유아·청소년(15세 미만)에 대한 초기검사비와 치료비 지원
 - 생활상담: 임금, 산업재해, 사업장 변경, 출입국, 의료 등에 대한 다국어고충상담
- 공공질서유지사업
 - Pin Point 맞춤형 외국인밀집지역 치안활동: 주취소란, 갈취폭력, 폭행, 도박(마작), 기초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예방활동
 - 외국인범죄예방교실: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으로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에 대한 대응방법 안내(분당경찰서)
 -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 교육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4세~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주1회 방문 15분 내외의 한국어학습 교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하나FC유소년축구단 운영
 - 중도입국자녀 적응지원사업: 9~24세의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종합반, TOPIK반), 기타동아리, 취업교육(바리스타), 문화체험, 심리검사, 집단미술프로그램, 상담 등의 교육 제공
 -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 대상 검정고시 준비반 운영

- 주민통합사업
 - 이주민참여사업: 지구촌어울림축제(세계인의 날 행사), 외국인주민송년행사 등
 - 이주민인권·권익사업: 다문화이해교육, 국가별 외국인주민자조모임 운영지원, 한시적 실직이나 투병, 가정불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동포 및 기타 외국인주민들에게 쉼터, 휴식공간 등 제공 및 상담

나.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 중국동포 밀집배경

- 성수동공단과 인접해 있어 허름한 지하방을 위시해 임대료가 저렴한 단독 및 다세대주택 다량 확보
- 지하철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이 있어 강남지역과 지리적 연결성이 좋고 교통 편리
- 주변에 건국대학교, 대규모 쇼핑센터, 상가 등이 위치해 왕래하는 유동인구가 많아 요식업에 유리

○ 중국동포 현황

- 2015년에 자양1동의 주민등록인구는 23,862명이며, 외국인주민은 7,406명임. 외국인주민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 즉 중국동포는 6,20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83.7% 차지
- 양꼬치거리라 불리는 중국음식문화거리가 있는 자양4동은 서울에서 가리봉동-대림동에 이어 국내 대표적인 중국동포 집중거주지

○ 중국동포 관련 사업

- 2016년에 광진구의 전체 외국인주민 관련 사업예산은 2,500만원에 불과하여 지역구 차원에서 중국동포만을 위한 특화된 사업 추진이 어려움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중국동포 관련사업(예를 들면, “찾아가는 중국동포문화이해교육”)에 협조하는 수준으로 사업 전개
- 광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시행
- 생활안정사업
 - 급식비 지원: 외국인근로자 자녀에게 급식비 지원
 - 건강·의료: 광진구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족구성원들에게 혈청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혈당검사, 고지혈검사, 간기능검사, 콜밀도검사, 암표지자 검사 등의 무료건강검진 기회 제공
- 공공질서유지사업
 - 광진경찰서 외사계, 광진구청, 다문화센터, 중국동포상인회가 함께 하는

방법순찰대(15~20명 정도로 구성)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약 40분간 방법순찰하고, 단체카톡방을 열어 수시로 정보교환 및 협력

-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위급상황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거주외국인에 대해 놀이식 생활안전 체험교육 실시
- 교육지원사업
 - 다문화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자존감 향상 및 문화예술 인재육성 차원에서 다문화어린이합창단 지원
- 주민통합사업
 -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 사이에 직접적 친목관계는 없으나 갈등 또한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함. 주민통합을 위해 광진구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없으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지구촌어울림축제, 다문화가족문화체험 등을 통해 이주민참여 독려

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 중국동포 밀집배경

-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수십 개 국가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중국동포가 전체 외국인주민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 원곡동은 반월산업단지 일부를 포함한 도시와 농촌, 공단이 병존하는 지역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었고, 원곡동을 중심으로 집단거주지 형성
- 반월산업단지를 배경으로 집세가 저렴한 다세대주택이나 원룸이 많으며, 일자리가 풍부하고 안산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외국인노동자 대상 상권이 형성되어 있음
-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의 지원활동과 다문화마을특구 형성 등 안산시의 적극적인 이주민 행정 역시 이주민을 원곡동으로 몰려들게 함

○ 중국동포 현황

- 2015년에 원곡본동과 원곡1동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각각 100.4%와 96.3%로, 주민 2명 중 1명이 외국인주민
- 미등록외국인을 포함하면 원곡본동 거주 외국인인 5만~6만명으로 추산됨
-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 즉 중국동포는 26,524명으로 원곡본동 외국인주민의 79.1% 차지

○ 중국동포 관련 사업

- 특별히 중국동포만을 위한 사업이나 정책은 없지만, 전체 외국인 중 중국동포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산시의 외국인주민 관련 사업 대부분이 중국동포에게 적용
- 원곡동에 위치한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의 외국인주민지원사업 중심으로 사업 진행
- 생활안정사업
 - 상권안정을 위해 다문화마을특구의 상권을 조사·분석함
 - 직업교육으로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컴퓨터, 운전면허 등) 실시
 - 건강·의료: 무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진료과목은 일반진료(고혈압, 당뇨병, 관절통, 소화불량, 감기 등), 치과진료(구강검진, 치주질환관리, 단순발치, 시린이 치료 등), 한방진료(한방침 시술, 한약처방, 건강상담 등)으로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다문화가정 지원: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위기에 직면한 다문화가족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로 가족역량 강화
 - 생활정보 제공과 상담: 임금퇴직금, 연금보험, 근로관계, 사업장 갈등, 산업재해, 법률지원, 체류지원, 의료지원, 다문화가정 생활고충 등에 대한 다국어 전화 및 방문 상담
- 공공질서유지사업
 - 외국인범죄예방종합치안대책 가동: 특히 기초생활질서 관리와 범죄예방을 위해 9명(내국인 7명, 외국인 2명)으로 구성된 원곡특별순찰대가 운영되고 있음
 - 2013년에 중국인자율방범대가 발대식을 가진 이후 원곡동 다문화특구지역을 중심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주2회 치안 및 환경미화 활동
 - 미등록외국인 중심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은 필요한 경우 검문검색을 통해 흥기소지 여부 확인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 방범용 CCTV 및 보안등 추가 설치
- 교육지원사업
 -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에서 만20세에서 18세의 이주배경 다문화아동과 청소년 대상 교육(보육) 사업 제공. 구체적으로 교육중재프로그램, 이중언어지원, 통합인지발달프로그램, 예비초등학교 입학준비교육, 예비초등학교부모교육, 난민가족지원 등의 사업이 있음
 - 안산시 거주 외국인주민에게 무료로 한국어교육(기초과정,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이해증진교육 등 제공
- 주민통합사업
 - 이주민참여사업: 민관협의체 구성, 다문화마을특구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

- 이주민인권보호사업: 외국인주민인권증진조례 제정(2009),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 설치,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운영

라.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매산동

○ 중국동포 밀집배경

- 수원시는 교통의 요지로 특히 주말에 인근지역 거주 외국인주민들,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이 수원역 주변으로 모여들어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각자의 경험을 공유
- 외국인이 모이면서 범죄 등 사회적 일탈 문제 발생
- 특히 수원역 주변의 고등동과 매산동에 중국동포가 밀집하여 거주

○ 중국동포 현황

- 2015년에 고등동의 주민등록인구는 12,582명이며, 외국인주민은 4,524명임. 외국인주민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 즉 중국동포는 3,586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79.3% 차지
- 2015년에 매산동의 주민등록인구는 11,932명이며, 외국인주민은 3,351명임. 외국인주민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 즉 중국동포는 2,861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85.4% 차지

○ 중국동포 관련사업

- 특별히 중국동포에 특화된 조례나 정책은 없고, 2007년 6월 제정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사업 수행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 생활안정사업
 - 건강·의료: 의료진료 시 언어를 지원하며 관련기관(외과, 내과, 치과, 안과, 신경외과, 소아과 등)과 연계하여 진료 진행
 - 생활상담: 근로, 체류 및 국적, 보험, 임금체불, 산업재해, 퇴직금, 출입국, 의료 등에 대한 다국어고충상담
 -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해 부부감성코칭프로그램, 가족건강예방법, 가족여행프로그램 등의 사업 진행
- 공공질서유지사업
 - 중국동포인 오원춘(2012)과 박춘풍(2014)에 의한 살인강력범죄가 발생했던 만큼 수원시는 특히 외국인의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치안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 다문화경찰센터 개소(2015.08.): 경기지방경찰청은 고등동에 1명의 센터장과 경찰 4명을 배치해 교대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다문화경찰센터 운영
- 외국인자율방범대 조직(2016.04.24.): 중국, 베트남 등 4개국 외국인근로자 15명, 결혼이주여성 22명, 중국동포 13명 등 모두 50명으로 구성.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수원시 매산동과 고등동 등 외국인밀집지역을 순찰하며 범죄 예방과 기초법규 홍보, 환경정화 등에 주력
- 외국인밀집지역에 3개의 안심(비상)벨 설치
- 교육지원사업
 - 직업교육: 컴퓨터, 제과제빵, 한식요리, 커피바리스타 교육반 개설
 - 한국어 초/중/고급반 개설, 상담통역사 양성교육 및 상담사 보수교육
 -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2016.05.): 미래지향적 글로벌 인재육성 및 다문화공생도시 구현을 위해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삼성전자,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과 상호 협력하여 센터 개관
- 주민통합사업
 - 이주민참여사업: 한국전통문화체험(태권도, 한국영화관람 등), 한국명절문화체험(설, 추석) 제공하며 외국인주민을 위로하고 친목과 단합 도모를 위해 각국의 명절행사 개최

3. 소결

- 대부분의 중국동포밀집지역에서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 주민 간에 서로에 대해 극히 무관심하거나 나아가 문화적, 생활관습적 차이로 인한 갈등현상 타나남
- 중국동포 밀집지역이 조성된 지자체는 대부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 지원의 법적 형태를 마련하고 있으나 특별히 중국동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나 규정, 사업은 부재
- 중국동포 밀집지역에서 진행되는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은 현재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주로 종교단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
- 대부분의 중국동포 밀집지역에서 추진되는 기본 사업들은 종류와 내용에 있어 상호 유사성이 많음
- 서울 서남권 이외의 국내 다른 중국동포 밀집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토대로 SWOT분석으로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발전방안을 도출하면 <표 II-1>과 같음

〈표 II-1〉 SWOT 분석을 통한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발전방안

내부환경 외부환경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S1 국내 최대 중국동포 밀집지역 S2 한국어·중국어의 이중언어 구사 S3 중국문화자산 보유	W1 대표이미지(랜드 마크)의 부재 W2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 간의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 W3 고급전문인력의 부족
기회(Opportunity)		SO 전략	WO 전략
O1 O2 O3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 증가 이색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서울 서남권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많은 관심	S1S2O1O3 대(對)중국교류 교두보로 개발 S2S3O1O3 '중국어마을' 설치 등을 통한 중국어교육중심지화 S1S3O2 국제관광지역으로 개발	W1W2O2 서남권만의 특화된 상품/이미지 등 개발 W3O1O3 전문기술교육(경영, IT, 무역, 다언어)을 통해 국제통상경영인 양성
위협(Threat)		ST 전략	WT 전략
T1 T2	한국인 선주민 인구 감소 (gentrification) 치안 불안, 지저분함 등 부정적 지역 이미지	S1S2T1 이중언어교육 허브로서 한국인 유입 유도 S1S3T2 국제관광지역으로의 개발로 새로운 긍정적 지역 이미지 개발	W1W2T1 대표적 지역이미지 구축으로 한국인 유입 유도 W2T1 선주민과 이주민 갈등 해소 사업 W2T2 치안개선과 공공질서 유지

III. 국내외 이주민 밀집지역 발전사례 분석

1. 국내 이주민 밀집지역

가.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 이주민 밀집배경

- 1985년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프랑스학교가 서래마을로 이전하면서 프랑스인 거주 증가
- 1986년에 효성빌라가 이 지역에 들어서면서 빌라촌 중심의 주거지 형성
- 서래마을의 독특한 이국적 분위기에 편승해 프랑스풍의 식당이나 주점이 생기고 이를 즐기려는 내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점차 관광지로 변모

○ 이주민 현황

- 서래마을이 위치한 서초구 반포4동은 서초구 내에서 주민등록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가장 높음
- 서래마을에 거주하는 프랑스주민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략 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측됨. 이들 중 거의 90%가 주재원으로 한국에 3년 정도 거주하고 귀국하며,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의 학부모가 서래마을의 주류연령대를 이룸

○ 이주민 관련 사업

- 특징
 - 문화적 차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갈등과 빈곤보다는 평화와 부유함이 지배하는 동네
 - 이주민 관련 사업의 대부분이 생활정보 제공, 문화교류, 친목도모에 집중
- 생활안정사업
 - 일상생활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이 위주
 - 핸드폰, 인터넷, 전화서비스업체 연결, 은행관련 정보, 영어 가능 병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 스포츠센터, 교육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교육지원사업
 -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프로그램, 언어교환문화프로그램

등 제공

- 주민통합사업
 - ‘반포서래한불음악축제’ 와 같은 문화행사 개최
 - 서래마을 거주 프랑스인과 한국인의 공동프로젝트로 대부분 소규모 행사
 - 서래마을 거주 프랑스인들은 마을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나 주민통합행사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열의가 크거나 진지한 것처럼 보이지 않음

○ 시사점

- 서래마을 거주 프랑스인의 대다수는 전문인력들로 도시하위계층 집중거주지로서의 외국인 밀집지역과는 성격을 달리함
- 발전된 문화 자본과 일정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 밀집지역을 형성하는 경우 기존의 한국인 선주민과 별다른 갈등 없이 소통과 교류를 통해 상호 공존할 수 있음을 서래마을은 보여줌

나. 인천 차이나타운

○ 이주민 밀집배경

- 1883년에 상해-연태-인천 항로의 개설이후 1884년에 중국조계지가 현재 인천 자유공원 부근 지역에 설정되어 화교와 화상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에 따라 중국인들이 모여 살면서 중국의 독특한 문화 형성
- 1948년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한국정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화교 한국유입 사실상 중단
- 1960년대에 제정된 외국인토지소유금지법, 화폐개혁 등으로 화교들이 많은 재산을 상실하고 미국, 호주, 대만, 일본 등을 향해 국외이주
- 1990년대에 들어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의 무역거래 재개, 2000년 중국의 한국 단체여행 자유화조치의 전면적 시행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인 급증,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등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오랫동안 침체와 낙후상태에 있던 인천 화교사회의 변화 분위기 조성

○ 이주민 현황

- 2015년 기준으로 인천 차이나타운이 위치한 북성동의 외국인주민은 전체 거주자의 20.7% 차이
- 외국인 가운데 대만국적자가 408명으로 한국국적 미보유 외국인의 58.5%를 차지

○ 이주민 관련 사업

- 인천시와 인천시 중구청이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정책에 따라 2001년에

- 북성동과 선린동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
-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집중 투자하면서 본격으로 북성동과 선린동 일대에 인천 차이나타운 개발사업 전개
- 관광시설 확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중국상가 조성, 자장면박물관 조성, 야외문화공간 조성, 테마거리 조성, 차이나타운 내 주요 거리 통행 제한, 거리예술제 실시, 중국어마을 조성, 기반시설 공사 등 유무형의 관광인프라 개발
- 시사점
 - 토착화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주거주민인 화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정부가 주도의 차이나타운 개발사업 전개로 갈등 발생
 - 정부의 개발정책에 대해 화교와 한국인 주민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화교사회 내부에서 과거부터 거주해온 구 화교와 중국대륙에서 새로 유입된 신 화교 사이에도 의견 차이 발생
 - 인천 차이나타운의 경관은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국의 이미지를 복사하는 수준이며, 이러한 경관에 대해 화교들은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차이나타운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는 비판 제기

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 이주민 밀집배경
 - 2000년대 중반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산정동, 우산동 일대에 고려인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고려인 집중거주지 형성
 - 주변에 하남공단, 평동공단, 소촌공단 등 광주시의 주요 공단들이 위치하여 고려인이 공장의 단순노무직 일자리 찾기에 유리
 - 주변에 농촌지역이 가까이 있어 일용농업노동자에 대한 수요 존재
 - 주택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기에 적절한 요건
 - 2004년에 한국인 목사가 고려인공동체를 설립하고 고려인동포들을 지원하면서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고려인 사이에 선호하는 거주지로 부상
- 이주민 현황
 - 고려인이 집단거주하는 광산구 월곡1·2동의 경우 2008년 고려인주민은 228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광산구청 추산에 의하면 2016년 7월 말 현재 1,792명의 외국국적의 등록 고려인 거주
 - 이외에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를 한 고려인이 919명으로 전체 고려인주민 수는 2,711명으로 집계

- 실제로는 광산구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3,000명이 넘는다는 주장 존재
- 고려인마을 주민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압도적 다수 차지
 - 2016년 7월말 현재 2,711명의 전체 고려인 중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1,763명 차지
 - 그밖에 카자흐스탄 출신이 246명, 키르기스스탄 출신이 130명, 우크라이나 출신 1,763명, 한국계 러시아인 452명으로 집계

○ 이주민 관련사업

- 특징
 - 광주광역시에서 2013년 10월 1일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고려인주민 지원조례 제정
 -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고려인마을 돌봄센터, 고려인한마당행사 및 한국어교육 등에 일정 정도 현금을 지원하지만 광산구청 차원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재정 지원 없음
- 생활안정사업
 - 2009년 1월에 개소한 고려인주민센터에서 취업 알선, 외국인등록 등 공적 업무와 통역 지원, 체불임금 해결과 병원치료 알선, 송금업무 지원 등 수행
 - 2013년 3월에 고려인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고려인마을협동조합이 설립되고, 고려인음식점(1~5호점)과 슈퍼마켓, 여행사 등이 운영 중
 - 고려인동포의 건강·의료를 위해 광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유기적 업무협력체계 구축
 - 2016년 9월 2일 국내 최초로 고려인동포를 위한 고려FM라디오방송 개국
- 공공질서유지 사업
 - ‘고려인마을 깔꿈이봉사단’ 을 구성하여 매주 주말 고려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마을 청소
 - 주민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 교육지원사업
 - 2012년 10월에 새날어린이집이 개소되어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비롯한 운동, 문예활동을 지도하고 급식과 간식 제공
 - 2007년 설립된 새날학교에서 고려인학생이 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어와 한국문화프로그램 집중적으로 교육
 - 2013년 7월에 개소된 고려인마을아동센터에서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에 한글, 영어, 수학, 예능 등의 학습 지도
 -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고려인마을 새날학교 재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프로그램 제공

- 주민통합사업
 - 매년 10월 셋째 주 일요일의 고려인의 날 행사로 ‘고려인동포 한마당’ 개최
 - 미취업고려인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고려인에게 쉼터와 무료급식 제공
- 시사점
 - 고려인마을은 국내의 모범적인 이주민커뮤니티의 대표적 사례
 - 고려인마을이 자립적이고 모범적인 이주민 밀집지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려인이 밀집하기 시작한 초기에 고려인공동체를 설립하고 고려인동포 지원에 주도적으로 적극 노력한 한국인이 있었음

2. 국외 이주민 밀집지역

가. 일본 오사카 코리아타운

- 이주민 밀집배경
 - 과거 일제강점기에 경제적으로 몰락한 조선의 농민들이 일본의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코리아타운 형성 시작
 - 1939년부터 시작된 일제 강제연행에 의해 한인 거주자 규모 크게 확대
 -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도 한인이 남아서 코리아타운 발전 지속
 - 오사카 이쿠노쿠 코리아타운은 재일한인들의 경제 및 소비생활의 중심지이며, 한국인들간에 상품거래가 이루어지고 한국에 관한 소식이나 생활, 구직 정보 등을 나누는 공간
- 이주민 현황
 - 오사카 거주 외국인 중 한국인이 105,411명(49.1%)으로 약 절반 정도를 차지
 - 한국인 거주자 대부분이 영주권자이며 일반 체류자나 유학생의 비율은 낮음
 - 코리아타운 거리에는 약 150여개의 점포가 있으며, 재일한인들은 120여개 점포에서 김치, 반찬, 한복가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류상품 판매점 증가
 - 이 지역 상인의 약 80%가 제주도출신 올드커머로 구성
- 이주민 관련 사업
 - 생활안정사업
 - 코리아타운 상인회에서 재일동포들의 상권 유지 및 활성화 노력
 - 오사카외국인센터에서 이주민을 위한 구직서비스 제공
 - 일본정부 차원의 ‘다문화공생 동네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코리아타운 지역 내에 명소, 유적지, 먹거리, 축제 등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관광지도 제작

- 일본정부가 오사카 거주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 공공질서유지 사업
 - 오사카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동포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리아타운 내에 CCTV 설치 추진
- 교육지원사업
 - 코리아NGO에서 오사카지역 내의 소학교에 민족학급 개설·운영을 통해 재일한국인들에게 한민족 정체성 교육
- 주민통합사업
 - 코리아타운내 ‘반가식 공방’에서 2002년 10월부터 외국문화체험센터를 개설하여 김치만들기, 한국요리교실, 한국어강습 등을 제공하면서 일본인에게 한국의 전통음식과 문화 소개
 - 휴라이즈 오사카 아시아-태평양인권정보센터, NPO 다민족다문화공생센터 등 다수의 NGO 및 NPO 단체들이 이주민의 인권보호 노력 전개

○ 시사점

- 오사카 코리아타운이 이주민들만의 낙후공간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제적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발전한 배경에는 일본사회 내 한류 열풍 등 지역사회 외부 영향도 있었지만, 외부 영향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 중요
- 오사카 코리아타운의 한국문화는 한국에서 경험하는 한국문화와는 분위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지역 경쟁력으로 작용
- 한국적이면서도 일본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오사카 코리아타운을 방문하여 색다른 한국문화상품 체험

나. 일본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 이주민 밀집배경

- 1859년 요코하마가 개항될 때 유럽 상인들이 대동한 중국인 통역관들이 머물면서 중국인 거주지가 형성되고 이후 중국인밀집지역으로 발전
- 1955년에 중국을 상징하는 대문이 세워지면서 차이나타운의 위상 갖추
- 1972년을 기점으로 중국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차이나타운이 요코하마의 관광명소로 성장
- 1993년 차이나타운에 있는 23개의 단체의 마을조성단체연합회의회 결성, 1995년 7개의 패루(牌樓)를 신축, 2003년에 자오양문(朝陽門) 완성 등으로 차이나타운의

명성 공고화

○ 이주민 현황

- 차이나타운 거주 외국인은 중국인이 34,511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그 뒤를 이어 한국·조선인(13,603명), 필리핀인(7,328명), 베트남인(4,314명) 등의 순으로 거주
- 요코하마 거주 중국인의 38.4%가 영주권자이며, 대부분 가족단위 이주자임
- 한국·조선인의 경우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특별영주권자이며, 일반영주권자까지 포함하면 약 71%가 요코하마에서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생활

○ 이주민 관련사업

- 생활안정사업
 - 요코하마시는 차이나타운 활성화를 위해 차이나타운발전추진위원회를 조직·운영
 - 외국인의 구직을 돕기 위해 영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서비스와 상담서비스 지원
- 공공질서유지 사업
 -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물품배포와 판넬 등을 전시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며, 재해시 위험 감소를 위해 집안 가구 등을 무료로 고정해주는 서비스 제공
- 교육지원사업
 - 외국인학생을 위한 국제교실 지원, 공립이중언어학교 운영
 - 성인들의 일본어 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만드는 일본어교실
- 주민통합사업
 - 이주민과 일본인의 통합을 위해 요코하마 마이스터 축제(기술자들의 기술 관람, 어린이 기능체험 등), 베트남 페스타 in 가나가와(베트남이주민 축제), 요코하마 도예페스티벌 등의 축제 개최
 - 다문화 공생사업

○ 시사점

-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은 다른 지역의 차이나타운과는 달리 넓고 깨끗한 길 양편에 다양한 길거리음식과 작은 중국상품점이 빼곡이 들어서 있어 방문객이 여유 있게 구경할 수 있음
- 상점가 인근에 개항사박물관이 위치해 있어 방문객들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일본의 역사, 지역발전 과정, 일본 내 중국인의 역사를 학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지역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지역주민단체가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다. 프랑스 파리 13구

○ 이주민 밀집배경

-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1950~1970년대에 북아프리카지역 국가들에서 이주노동자들이, 1980년대 이후에는 아프리카 외에도 아시아출신 이민자들이 파리에 유입되면서 비유럽 이민자 수 증가
- 파리 남부 제13구에 아시아국가 출신이 모여들면서 차이나타운 발전
- 이름은 차이나타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인 이외에도 베트남, 타이 등지에서 온 이주민들이 운영하는 아시아 음식점과 상점이 밀집한 일종의 아시아타운
- 파리 13구의 차이나타운 거주공간이 아니라 상업지구임
- 낮에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업무를 위해 생활하는 공간이지만, 저녁에는 아시아인 생활장소라기보다는 아시아문화의 장소가 됨

○ 이주민 현황

- 2013년 기준으로 파리지 거주 이민자는 455,486명으로 전체 인구의 20.4% 차지
- 이민자를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알제리(10.2%) 출신이 가장 많고 이어서 모로코(8.3%), 튀니지(6.4%), 터키(1.1%) 순
- 2013년 기준으로 파리지 외국인 수는 330,167명으로 파리 전체 인구의 14.8%이며, 이 중 유럽연합 출생자는 30.5%, 나머지 비유럽연합 출생자의 국적은 알제리(9.0%), 모로코(6.1%), 튀니지(4.3%), 터키(1.0%) 순임

○ 이주민 관련사업

- 파리지의 이주민 관련사업은 이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지역민 전체를 대상 시행
- 파리지의 이주민 관련된 업무는 ‘도시정책 및 통합국의 사회통합팀’ 이 수행
- 파리지의 이주민 관련사업은 이주민 차별 방지에 역점
- 이민자통합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정책 실시하여 이주민에게 자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파리지민들에게는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

○ 시사점

- 이주민 문화를 활용하되, 현지인의 취향을 고려하면서 지역발전 추구
 - 파리지민의 고급스러운 취향을 고려하여 아시아 전통 상품을 고급스럽게 진열
 - 이주민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아시아의 독특한 맛과 멋을 즐기려는 일반 프랑스인과 외국인이 함께 즐겨 찾는 공간으로 발전
- 시정부의 지원만으로 이주민 밀집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주민의 동참과 적극적 의지 필요

라. 독일 베를린 노이쾰른구

○ 이주민 밀집배경

- 1960년대 서베를린 경제가 크게 성장하여 노동인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터키와 구 유고슬라비아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수용
- 외국인노동자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노이쾰른구역 북부에 터전을 마련하면서 노이쾰른에 터키이주민 밀집거주지 형성
-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아랍권에서 온 이슬람 난민들이 노이쾰른의 터키인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그 사이 경제력이 향상된 터키이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노이쾰른구는 베를린에서 빈곤과 실업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낙오지역 이미지 형성

○ 이주민 현황

-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베를린 노이쾰른구의 인구는 325,716명이며, 이 가운데 이주배경주민은 137,291명으로 전체 주민의 42.2%를 차지
- 노이쾰른구 외국인주민을 국가별로 보면, 터키출신이 20,900명(27.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폴란드출신 6,661명(8.7%), 세르비아 3,637명(4.8%), 불가리아 3,328명(4.3%), 이탈리아 3,185명(4.2%), 루마니아 2,740명(3.6%), 레바논 2,354명(3.1%) 순

○ 이주민 관련사업

- 특징
 - 베를린시는 1999년 이래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사회통합도시’ (die soziale Stadt)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환경이 열악한 구역(Quartier)의 발전과 안정 도모
 - 2010년 현재 베를린에서 구역관리 대상은 38개이며 이 중 노이쾰른구에 11개 구역 위치
- 생활안정사업
 - 노이쾰른구 주민의 1/3 정도가 사회부조로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주민이 사회부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주민을 위한 직업교육 제공
 - 이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공공기관에 가산점 제공
 - 채용공고에서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장려할 것을 의무화
- 공공질서유지 사업
 - 장기적으로 범질서가 효과적으로 유지되도록 범죄에 대해 직접적이고(unmittelbar), 곧바로(direkt), 실효성 있게(operativ) 대응하는 긴밀협력체제 우도(UDO)모델 가동

- 청소년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준법정신교육, 대화에 의한 갈등해결방법 교육
- 안전한 학교만들기위해 학교 민간경비제도 도입
- 청소년 상습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통해 재범 방지 모색
- 교육지원사업
 - 어린이들이 일찍부터 독일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Kindergarten)에 보내도록 의무화
 - 노이쾰른 북부의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쉼터 설치
 - 이슬람의 보수적 전통문화로 인해 학교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 노력
 - 공동체학교, 어린이집, 놀이터, 청소년회관, 평생교육과정, 직업교육 등을 포괄한 복합교육장인 튀틀리캠퍼스 운영
- 주민통합사업
 - 구청장과 구청의 이주담당관 및 12명의 이주민단체를 비롯해 사회복지단체, 학교, 경찰, 정치행정분야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이주민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독일인 선주민과 이주민의 우호적 공존 방안 모색
- 시사점
 - 이주민 관련 사업에서 관광지로의 개발 등과 같은 상업적 개발보다 이주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착된 사업 강조
 - 이주민밀집지역 개선사업은 단기적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매우 장기간에 걸쳐 시행
 - 노이쾰른구의 구역관리제 시행구역의 경우 주민이 10,000명 미만인 경우가 많으므로 노이쾰른구 나아가 베를린시의 구역관리제를 서울시 서남권 중국동포밀집지역 개선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고려 필요

마. 벨기에 브뤼셀 몰렌베이크구

- 이주민 밀집배경
 -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브뤼셀에 이주노동자 유입이 증가하였고, 특히 1960년대에 이주민 유입이 크게 증가
 - 1960년대 이후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이 도심 공장지대 주변 몰렌베이크에 거주하였고, 공장 이전 후에도 그 후손이 계속 거주
 - 몰렌베이크 이주민 인구는 이민 2세를 지나 이민 3세가 주류 형성
- 이주민 현황
 - 2016년 1월 기준으로 몰렌베이크구 총 인구는 96,586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

인구가 27,926명 차지

- 벨기에 통계에서 귀화자는 벨기에 국민으로 간주되어 이주민 통계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데, 현재 몰렌베이크구 주민 가운데에는 이민 2세, 3세로 넘어가는 벨기에 국적자 다수 포함
- 벨기에 국적의 이민배경 주민을 이주민집단에 포함시킬 경우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주민 출신으로 추정
- 몰렌베이크구 거주 외국인의 주요 출신국은 모로코 6,844명, 콩고민주공화국 918명, 터키 640명, 시리아(611명), 파키스탄(401명), 카메룬(309명), 알제리(270명) 등으로 이슬람출신 이주민이 다수 차지

○ 이주민 관련사업

-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브뤼셀에 많은 이민자가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뤼셀정부는 오랫동안 이주민정책 등한시
- 본격적인 이주민 지원사업은 1991년에 벨기에가 연방제국가를 준비하면서 시작
- 브뤼셀의 이주민 지원은 여전히 초기 정착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이주민의 전반적인 생활안정이나 이주민 2세를 위한 지원시스템은 부족한 상황
- 현재 몰렌베이크구의 이민 2세 학업포기와 일탈이 주요 사회문제로 부상하였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 방안 부재

○ 시사점

- 몰렌베이크구는 브뤼셀에서 오래 전부터 유명한 이주민 밀집지역이었지만 오랫동안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이민 2세의 사회부적응과 일탈의 누적되고 이들 가운데 2016년 3월 벨기에 자벤담공항 테러범이 나타남
- 이주민 밀집지역을 방치할 경우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사회문제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감심 제공

3. 소결

- 이주민 밀집지역에 따라 이주민 밀집배경, 이주민 구성 현황, 이주민 관련 사업 등으로 다르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른바 성공사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
 - 지역차원에서 정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기획하며 추진
 - 이주민 밀집지역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더라도 이주민만을 위한 사업을

- 지양하고 이주민과 선주민을 모두 수혜자로 설정하고 사업 추진
 - 장기간 지속사업으로 계획하고 진행
 - 이주민 밀집지역의 거주자의 민족, 계층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개발
 - 이주민 문화를 활용하더라도 이주민 밀집지역 문화는 이주민 출신국과 차별화된 문화 발전
- 지금까지의 논의를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SWOT에 의거하여 정리하면 <표 III-1>과 같음

<표 III-1> 국내외 이주민 밀집지역 사례를 통해 본 서울 서남권 SWOT 및 발전전략

원칙	사례연구 도출 내용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황(SWOT)			
협치	지자체 정부와 지역주민(시민단체)이 함께 지역발전방향 설정, 사업 기획 및 추진	S	• 다수의 다양한 중국동포단체 및 중국동포 언론 존재	W	• 지역주민 내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 주민 간의 갈등
		O	• 서남권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높은 관심	T	• 한국인 선주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의 시범적 협치사업의 결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상실민관협치제도' 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수혜자 보편성	이주민만을 위한 사업을 지양하고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추진	S	• 동아시아 진출의 게이트웨이로 서 유리한 지리적 입지	W	• 지역주민 내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 주민 간의 갈등
		O	• 서울시 차원의 상생경제 및 균형발전 강조	T	• 자치구의 관련 예산 부족
지역주민이라면 모두가 동등한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성의 원칙이 충실하게 견지되어야 함					
사업의 지속성	장기간에 걸친 지속사업 전개	S	• 동아시아 진출의 게이트웨이로 서 유리한 지리적 입지	W	• 지역과 주민의 경제적 낙후
		O	• 미래 국가경쟁력으로 관광산업 부각	T	• 자치구의 관련 예산 부족
이주민 밀집지역 개발 사업은 초기에 뚜렷한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특히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을 문화적 다양성과 활력을 가진 글로벌 상생지역으로 개발하려는 사업은 장기간을 요함					
맞춤형 정책	이주민 밀집지역의 특성(민족, 계층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	S	• 중국국적자이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점	W	• 주민의 다수가 단순 노무직이나 영세자영업 종사자
		O	• 서남권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높은 관심	T	• 부정적인 지역이미지
주민의 다수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으며, 거주지도 낙후된 지역이므로 환경정비와 생활안정 사업이 긴요					
융합문화	이주민 문화를 활용하더라도 밀집지역의 문화는 이주민 출신국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문화로 발전	S	• 한국에서 중국문화자산 보유	W	• 지역고유의 명확한 이미지의 부재
		O	• 이색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T	• 부정적인 지역이미지
서남권 중국동포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문화적 요소와 조선족으로서 갖고 있는 한국의 전통문화 그리고 현대 한국을 살아가면서 습득하는 한국의 현대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적 문화 형성 가능성 추진					

IV.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주민 의견



1. 중국동포단체 임원 의견: 포커스그룹 미팅

가. 조사방법

- 서울 서남권에서 중국동포를 대표하는 세 단체를 선정하여, 해당 단체의 대표들과 포커스그룹 미팅 진행
 - 재한동포총연합회(이사장 김숙자)
 - 중국동포한마음협회(회장 김용선)
 - 재한동포국적자총연합회(회장 서문성)
- 중국동포단체 임원들은 중국동포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역주민 입장에서 서울 서남권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나. 조사결과

- 주류 사회로의 진출 및 통합의 어려움
 - 대다수의 중국동포는 한국문화를 수용하고 한국의 주류사회 진출 희망
 -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에서 중국동포들이 주류사회와 접촉과 교류를 끊고 지낼 것이라고 속단하기 이룸
 - 하지만 신분상승에 실패하고 거주 이전을 하지 못한 중국동포가 서남권에 남아서 주류사회와 고립된 커뮤니티를 만들 가능성 존재
- 중국동포 자녀를 위한 특성화된 학교 필요
 - 중국동포는 중국동포 밀집지역 내의 학교를 중국어 및 중국통상 특성화 학교로 발전시키는 것을 선호
 -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통달하고 중국과의 무역 및 사회문화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이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
- 서남권을 국제무역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
 - 서남권에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능력을 갖춘 중국동포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한중무역에 종사하는 중국동포들이 많기 때문에 서남권을 중국과의 무역 및

- 사회문화 교류의 교두보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
- 서남권을 국제관광문화지구로 개발
 -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관광문화 콘텐츠를 갖춘 국제관광문화지구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

2. 중국동포 정책전문가 의견: 정책워크숍

가. 조사방법

- 연구 결과와 정책 제언을 보고하고 중국동포사회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언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2016년 11월 18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정책워크숍 개최
- 연구자가 발표하고 4명의 중국동포사회 지도자와 2명의 중국동포 전문가의 지정토론에 이어 참석자 종합토론

나. 조사결과

- 국내 거주 중국동포 3대 트렌드
 - 중국동포의 국내 거주가 장기화되면서 중국동포의 정주화, 경제적 지위 상승, 사회통합이라는 3대 트렌드 부상
- 중국동포에게 재외동포 자격의 제한적 부여로 인한 문제
 - 정부가 미국, 일본, 유럽의 재외동포에게 보편적으로 부여하는 재외동포 비자를 중국동포에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중국동포의 한국 생활에 불편과 차별 발생
-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기술교육제도의 문제
 - 방문취업 목적으로 왔다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제도가 실제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중국동포들이 비싼 학원수강비를 내고 교육 기간 동안 시간과 체류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재외동포 자격변경제도는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고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 있음
- 중국동포대상 이민행정서비스의 개선
 - 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 및 거소신고증에 자신의 한자 이름을 영어 알파벳으로만 표기하는 문제
 - 중국동포 밀집지역에 새로운 출입국관리소 설치

- 주말에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민원 제기
- 중국동포의 지자체 다문화 사업에서의 배제의 문제
 - 외국인 주민 신분을 갖는 중국동포들은 지자체의 다문화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음
 - 중도입국 중국동포 자녀들은 정부의 다문화청소년 복지지원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상적인 직업교육이나 공교육 시스템에 진입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음
- 중국동포의 지역사회 행정 참여기회 확대 필요
 - 중국동포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중국동포를 통장 또는 동장으로 임명하여 중국동포의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필요
- 서남권을 중국어 및 중국문화 학습의 기지로 활용
 - 서남권에 중국어 학습 교실을 만들어서 한국인들에게 중국어와 중국문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제안
- 서남권 발전방안을 서울 2030 플랜과 연계
 - 서남권 발전방안을 독립적으로 세울 것이 아니고 서울 2030 플랜과 같이 서울시의 종합적인 발전방안과 연계해서 수립할 것을 제안
 - 또한 남부도로공사 부지에 랜드 마크를 건설해서 서남권의 경제 활성화, 특히 한중무역의 거점으로 발전하는 방안 제안

3. 일반 거주민 의견1: 설문조사

가. 조사방법

- 서울 서남권 5개구에 거주하는 한국인 선주민 400명과 중국동포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한국인 선주민 설문조사 방법
 - 서울 서남권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5개 권역별(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성별, 연령별에 따라 비례 할당하여 표집
 - 한국인 주민은 1:1 대면조사를 통해 표집하고 실사는 전문리서치 업체인 IRC가 담당
 - 조사기간은 2016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 중국동포 대상 설문조사 방법
 - 서울 서남권에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실시
 - 중국동포의 표집률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중국동포를 대표하는 중국동포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조사기간은 2017년 8월 15일부터 11월 31일까지
- 중국동포 대상 설문조사는 확률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중국동포 전체에 일반화하는데 한계 존재

나. 조사결과

○ 상호 인식과 사회적 관계

-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 간의 상호인식과 사회관계는 불균형의 관계임
- 중국동포는 지역사회에서 평소 인사하며 지내거나 마음 떠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한국인 이웃 또는 친구의 수에서 한국인 선주민이 중국동포와 맺는 관계보다 훨씬 폭이 넓음
- 중국동포는 한국인 선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반면 한국인 선주민은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임
- 중국동포는 한국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통합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해서 중국동포 밀집지역이 게토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조급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음
- 상대 집단성원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감이 작을수록, 자기와 동일시할수록 분리보다는 통합형 공존 방식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함

○ 사회갈등 인식

- 한국인 선주민은 주로 생활환경 문제로 중국동포들과 갈등을 경험하지만, 중국동포는 생활환경보다 편견과 차별과 같은 부정적 인식의 문제로 갈등경험
- 전반적으로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 주민 간에 직접적인 갈등의 정도는 크지 않음
- 이는 중국동포 밀집지역이지만 실제 한국인과 중국동포와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상호간에 접촉의 빈도가 높지 않아서 갈등이 본격화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됨

○ 자녀교육 인식

- 한국인 선주민은 중국동포 자녀를 위한 포용적 태도보다 관망 내지 냉담한 시각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동포는 자신의 자녀가 한국인 자녀들과 어울려서 통합된 교육을 받기 원하고 자신들의 장기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희망

- 지역사회 인식
 - 중국동포의 밀집으로 인한 지역사회에 미친 효과에 대해 한인 선주민은 부정적 효과에 더욱 민감한 반면 중국동포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효과 모두를 인식
 - 또한 한국인 선주민은 중국동포와 거리두기를 하려는 반면 중국동포는 적극적으로 함께 살려는 자세가 강함
- 생활환경 개선 방안
 - 한국인 선주민은 환경 정비, 주거환경 개선, 치안 개선과 같이 일상생활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희망
 - 중국국적 중국동포는 치안 개선, 여가 문화시설 건립, 편견 및 차별 감소, 자녀교육 환경개선 등과 같이 한국인 선주민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개선 요구

4. 일반 거주민 의견2: 심층면접조사

가. 조사방법

- 심층면접 대상자는 서울시 5개구(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권역에서 거주하거나 사회활동(경제활동, 단체활동)을 하는 42명을 표본으로 선별
- 성비, 연령, 지역, 대상자의 출생지 등을 고려하고 동포 밀도를 예측하여 지역 안배를 주요 기준의 하나로 선택
- 또한 지역 관련기관의 실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기관 및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6인의 면접도 병행
- 원활한 심층면담 진행을 위해 심층면접 책임자 1명이 사전 선별 후 2명의 채록보조자가 상황에 따라 합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대상자의 상황을 존중하여 일부 서면답변도 실시

나. 조사결과

-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
 - 심층면담자들은 공통적으로 거주 지역의 물리적 낙후를 문제로 지적
 - 거주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도시계획적 측면의 정책이 미흡하거나 시행 좌절에 대한 패배감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떨어진다고 생각
-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과의 접촉 부재
 - 중국동포와 한국인 선주민 간의 사회관계는 생활과 밀접한 극히 일부분의 범주

- 안에서만 이뤄짐
- 지역사회와 접촉하는 상황은 주로 중개(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임대인과 입주자 간의 관계, 여행사, 행정사, 직업소개소 등에서의 분쟁 해결 및 직업소개 등 경제활동을 위한 접촉, 생필품 구매를 위한 상점주와 손님간의 관계로 만나는 최소한의 접촉으로 나타남
- 문화적 차이와 편견
- 중국동포와 한국인 선주민 간의 관계에는 문화적 차이와 상대에 대한 편견이 중요하게 작용
 - 특히 한국인 선주민이 중국동포와 중국동포 밀집지역에 대해 갖는 부정적 태도는 중국동포의 생활습관에서 기인함
- 미디어의 왜곡보도
- 대다수의 한국인 선주민은 중국동포와 직접 접촉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매스미디어를 통해 중국동포에 대한 선입견과 태도 형성
 - 한국사회에 대중매체는 극단적인 사건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중국동포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음
- 지역발전 방안
- 상호 소통과 교류 증대, 상호 인식개선, 공동협의체 구성, 문화센터와 같은 공동 사용 시설 확충을 중요한 지역발전 방안으로 제안
 -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두 집단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런 것이 가능한 장소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
 - 두 집단이 갖고 있는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이해 교육을 확대할 필요. 이를 위해 두 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상시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 지자체와 시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중국동포로 하여금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
 - 학령기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소통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
 - 중국동포가 건전하게 여가를 즐기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갖게 하기 위해 여가문화센터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이런 공간에서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해 학습하고 한국인 선주민들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는 것이 중국동포의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과제임.

5. 소결

-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 주민 간의 인식의 차이와 거리감이 존재함
- 한국인 선주민은 중국동포 주민에 대해 관심이 없고 알고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의 수도 매우 적음
 - 중국동포와 친밀하게 지내려는 의사가 없고 분리된 방식의 공존 선호
- 중국동포는 한국인 선주민과의 관계의 폭이 훨씬 넓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고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공존의 방식을 선호함
 - 중국동포는 한국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통합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주
 - 중국동포 밀집지역이 게토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성급한 판단임
-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 주민 간의 갈등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지만 두 집단이 인식하는 갈등의 원인은 상이함
 - 한국인 선주민은 쓰레기 처리와 같은 기초 질서 문제에서 갈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중국동포 주민은 편견과 차별의 문제에서 갈등을 가장 강하게 느낌
 -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의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상호간에 접촉의 빈도가 높지 않아서 갈등이 본격화 되지 않음
- SWOT 분석을 통해 서남권 지역의 강점과 약점 요인, 그리고 서남권 지역에 주어진 기회와 위협 요인을 교차해서 강점-기회(SO) 전략, 약점-기회(WO) 전략, 강점-위협(ST) 전략, 약점-위협(WT) 전략을 제안함
- 강점-기회(SO) 전략으로 초국가적 인적자원과 게이트웨이 지리적 입지를 활용하여 한중무역의 확대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 지역을 국제무역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
- 약점-기회(WO) 전략으로 지역주민(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 포함)을 국제문화관광의 인적자원으로 육성하는 방안 제안
 - 이 지역의 지역주민 중에는 교육 수준 또는 직업 기술면에서 일반노동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한중무역과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인적자원으로 육성하는 방안
 - 또한 일본 오사카의 츠루하시(鶴橋)시장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선주민과 이주민이 공생하는 지역개발 모델을 개발
- 강점-위협(ST) 전략으로 서남권이 당면한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동포와 같이 신성장인구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 고려

- 또한 이 지역에 밀집해 있는 중국동포와 같은 이주배경 학생들의 이중 언어와 문화 능력을 강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제통상문화학교를 특성화하는 방안.
 - 아울러 낙후되고 위험하다는 기존의 부정적 지역 이미지를 국제적이고 역동적이라는 긍정적 지역 이미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
- 약점-위협(WT) 전략으로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주민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
- 치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이 공공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단속을 강화
 - 또한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가 갈등하지 않도록 상호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교류 사업을 확대
 - 아울러 두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노력 필요

〈표 IV-1〉 주민의견을 통해 본 서울 서남권 SWOT 및 발전전략

		강점		약점	
		S1	S2	W1	W2
내부환경 외부환경		S1 초국가적 인적자원 풍부	S2 중국동포 상권 활성화	W1 지역과 주민의 경제적 낙후	W2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 간의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
		S3 게이트웨이 지리적 입지		W3 중국동포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정주의식 약화)	
기회		SO 전략		WO 전략	
O1	한중무역 증가	S1S3O1	국제무역지역 개발	W1W3O1O2	지역주민 국제문화관광 인적자원으로 육성
O2	중국인 관광객 증가	S2O2O3	한류의 교두보 및 국제문화관광지역 개발	W2O2O3	중국동포의 경제문화적 역량을 활용한 공생적 지역개발 모델 개발(예: 오사카의 츠루하시(鶴橋) 시장)
O3	새로운 문화관광수요 증대				
위협		ST 전략		WT 전략	
T1	한국인 선주민 인구 감소	S1S2T1	신성장인구 유치로 인구감소 극복	W1T1	지역주민 생활안정사업
T2	부정적 지역 이미지	S1T1	국제통상외국어학교 특성화	W1T3	치안개선 및 공공질서 유지
T3	범죄율 증가	S2S3T2T3	신경제성장모델로 새로운 긍정적 지역 이미지 개발	W2T2	선주민과 이주민 갈등 해소 사업

V.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자산

1. 인적자산

가. 인구구성

- 2016년으로 기준 서울 서남권 5개구(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인구는 약 1,960,000여 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19.5%를 차지함
- 서울 서남권 인구 가운데 외국인주민 비율은 10.5%(205,777명)로 서울시 평균 외국인주민 비율 4.5%를 크게 상회함
- 서울 서남권 외국인 주민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이 80%이상을 차지함

〈표 V-1〉 서울 서남권 지역 중국동포 현황

구분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시
외국계 주민		32,996	53,191	32,974	19,664	66,952	457,806
중국 동포	남성	10,887	22,846	13,878	5,742	27,942	123,583
	여성	12,951	21,828	13,541	6,645	28,285	138,962
	전체	23,838	44,684	27,419	12,387	56,227	262,545
중국동포 비율		72.2%	84.0%	83.2%	63.0%	84.0%	57.3%

자료: 행정자치부(2015)

- 서울시 평균 내국인 경제활동인구가 75.4%인데 반해, 서울 서남권 지역 중국동포 경제활동인구는 90%를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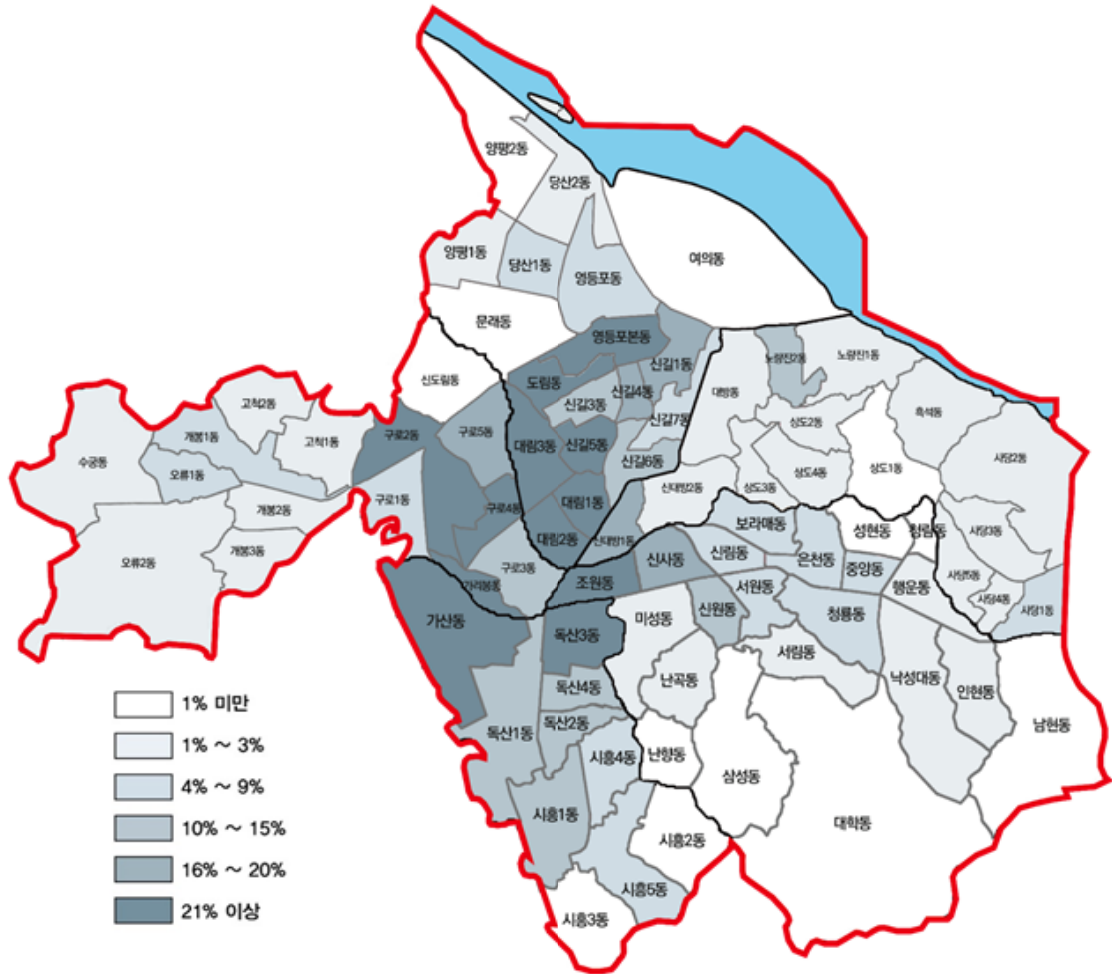
〈표 V-2〉 서울 서남권 지역 경제활동인구 현황

구분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시
내국인	전체	77.7%	74.5%	76.4%	75.2%	75.2%	75.4%
	남성	78.9%	75.1%	77.9%	75.9%	76.2%	76.2%
	여성	76.4%	73.8%	74.9%	74.4%	74.3%	74.6%
중국동포	전체	92.6%	92.4%	92.6%	94.6%	91.9%	92.3%
	남성	92.5%	92.9%	92.9%	94.0%	92.3%	91.8%
	여성	92.7%	91.9%	92.2%	95.1%	91.4%	92.8%

자료: 법무부(2016)

- 관악구에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4.6%에 해당하는 23,838명의 중국동포가 거주함
 - 구내 중국동포 최대 밀집지는 신사동(20.9%)
 - 신사동의 중국동포 밀집 주요 이유는 신림역과 신대방역 인접한 편리한 교통과 저렴한 집세임
- 구로구에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10.5%에 해당하는 44,684명의 중국동포가 거주함
 - 구내 중국동포 최대 밀집지는 구로2동(28.2%)
 - 구로동의 중국동포 밀집 주요 이유는 구로역과 대림역에 인접한 편리한 교통, 구로역 배후 대규모 기계공구 단지입지에 따른 풍부한 일자리 등임
- 금천구에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11.5%에 해당하는 27,419명의 중국동포가 거주함
 - 구내 중국동포 최대 밀집지는 독산3동(27.3%)
 - 독산3동의 중국동포 밀집 주요 이유는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인접한 편리한 교통과 시흥 IC주변 다가구주택 밀집구역의 저렴한 집세임
- 동작구에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3.0%에 해당하는 12,387명의 중국동포가 거주함
 - 구내 중국동포 최대 밀집지는 신대방1동(33.4%)
 - 신대방1동의 중국동포 밀집 주요 이유는 영등포구 대림동과의 인접한 편리한 교통, 신대방역 4번출구 인근 다가구 주택 밀집구역의 저렴한 집세임
- 영등포구에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14.7%에 해당하는 56,227명의 중국동포가 거주함
 - 구내 중국동포 최대 밀집지는 대림2동(25.1%)
 - 대림2동의 중국동포 밀집이유는 중국동포들의 자본, 기술, 문화, 정보를 비롯하여 중국동포 단체가 집중된 일종의 ‘중국동포 타운’ 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임

〈그림 V-1〉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인구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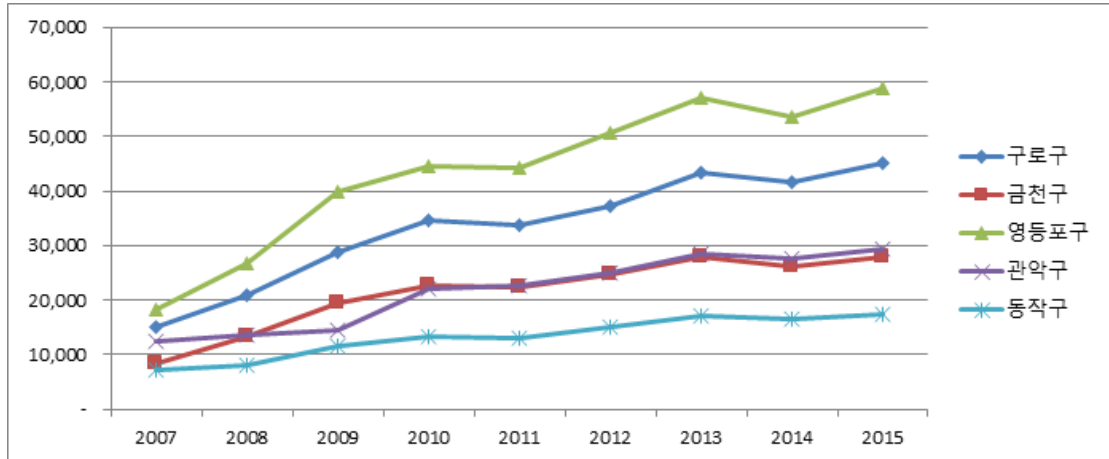


나. 인구변화

- 탈서울 현상의 가속화에 따른 서울시 인구 및 서남권 5개구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
- 이에 반해, 서남권 5개구 중국동포 인구수는 빠른 증가추세에 있음
 - 저렴한 주거지 밀집, 편리한 대중교통 등의 이유로 중국동포 인구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됨
- 관악구 전체 인구 감소는 지난 9년간 3.2%인데 반해 관악구 중국동포의 인구비율은 같은 기간에 51.8%가 증가하여 연평균 5.8%의 상승추세를 보임
- 구로구 전체 인구 증가는 지난 9년간 2.3%인데 반해 구로구 중국동포의 인구비율은 같은 기간 75.0%의 매우 높은 증가율로 연평균 8.3% 상승추세를 보임
- 금천구 전체 인구 감소는 지난 9년간 7.2%인데 반해 금천구 중국동포의 인구비율은 같은 기간 92.8%가 증가하여 연평균 10.3%의 상승추세를 보임

- 동작구 전체 인구 감소는 지난 9년간 0.7%인데 반해 동작구 중국동포의 인구비율은 같은 기간 40.0%가 증가하여 연평균 4.4%의 상승추세를 보임
- 영등포구 전체 인구 감소는 지난 9년간 6.4%인데 반해 영등포구 중국동포의 인구비율은 같은 기간 75.7%가 증가하여 연평균 8.4%의 상승추세를 보임

〈그림 V-2〉 서울 서남권 5개구 중국동포 인구 변화



다. 중국동포 체류자격

- 2016년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인 2,025,485명이며, 그중 외국국적동포는 774,345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대비 38.2%임.
- 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 사증소지자가 364,380명으로 다수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출신이 652,730명으로 84.3%를 차지함.
- 국내 체류 중국동포 중 27만 여명이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단순노무업종에 종사하며, 체류자격변경을 통해 정주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표 V-3〉 재외동포 주요 체류자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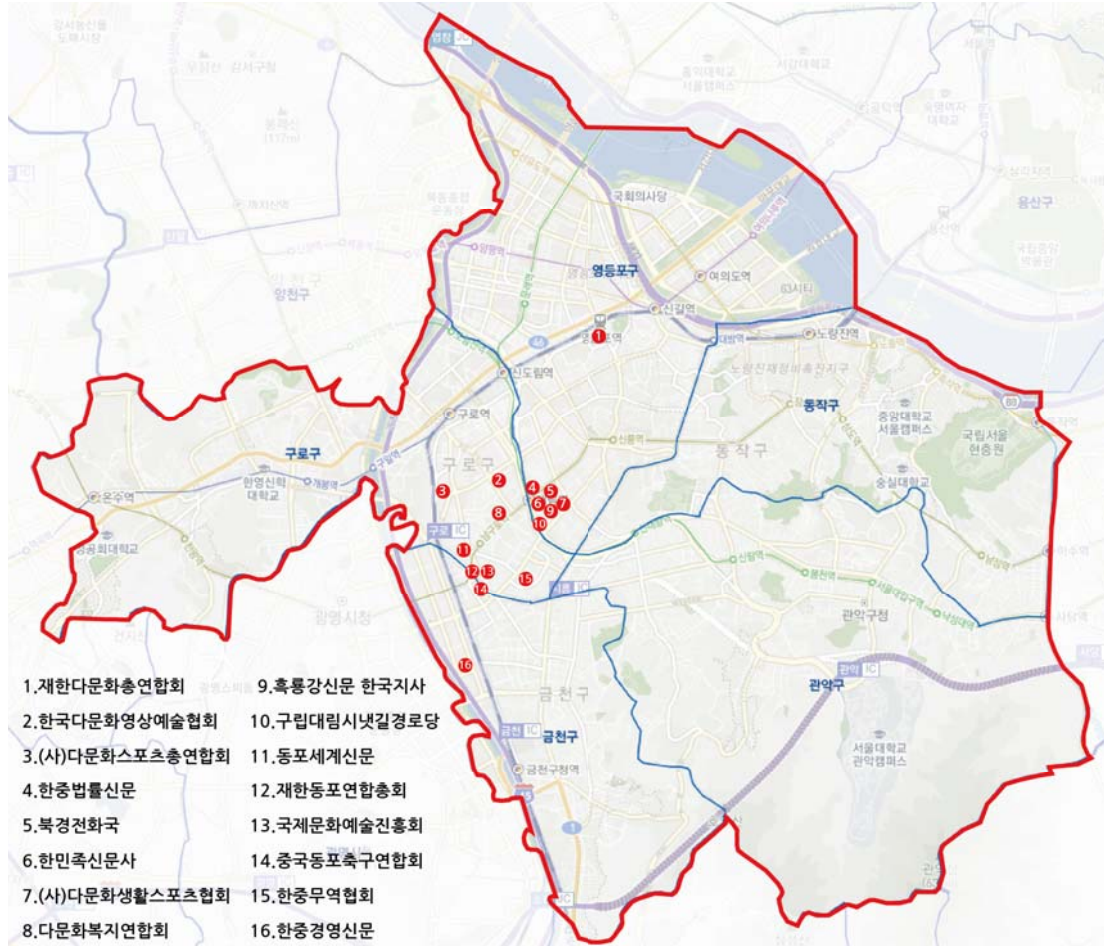
구분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영주 (F-5)	방문동거 (F-1)	기타
773,108	262,085	363,633	85,898	25,677	35,815

자료: 법무부(2016)

라. 중국동포 관련 단체

- 중국동포 관련단체 대림2동과 가리봉동 일대에 집중 분포함

〈그림 V-3〉 서울 서남권 지역 주요 중국동포 단체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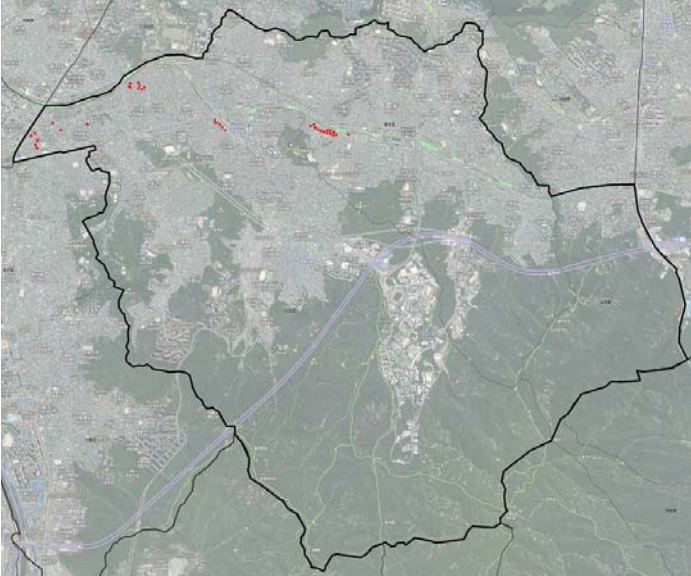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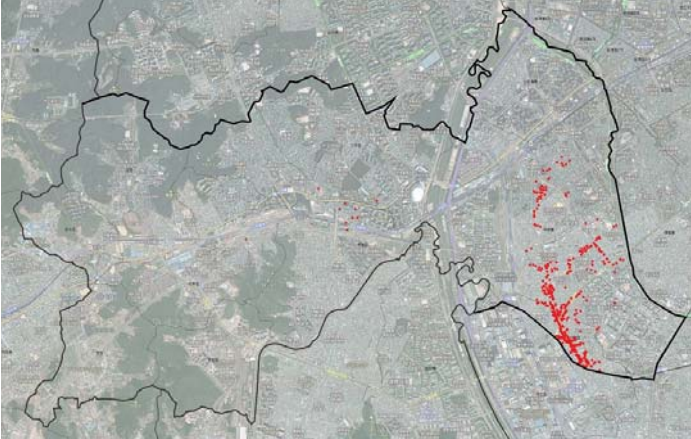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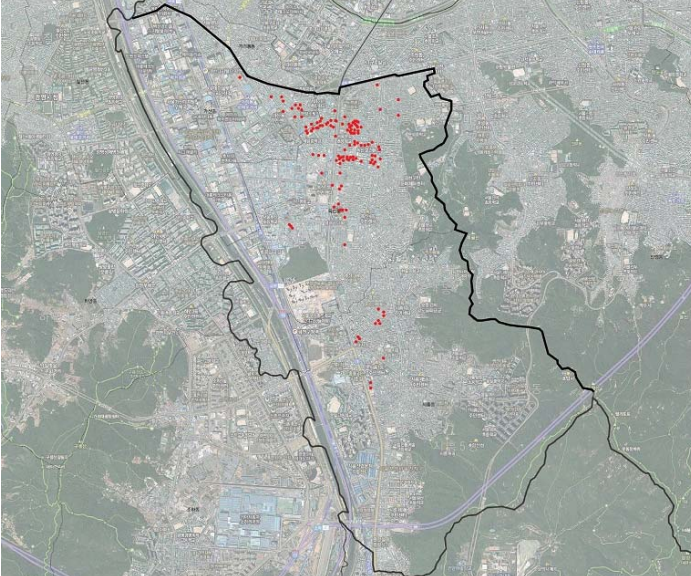


2. 산업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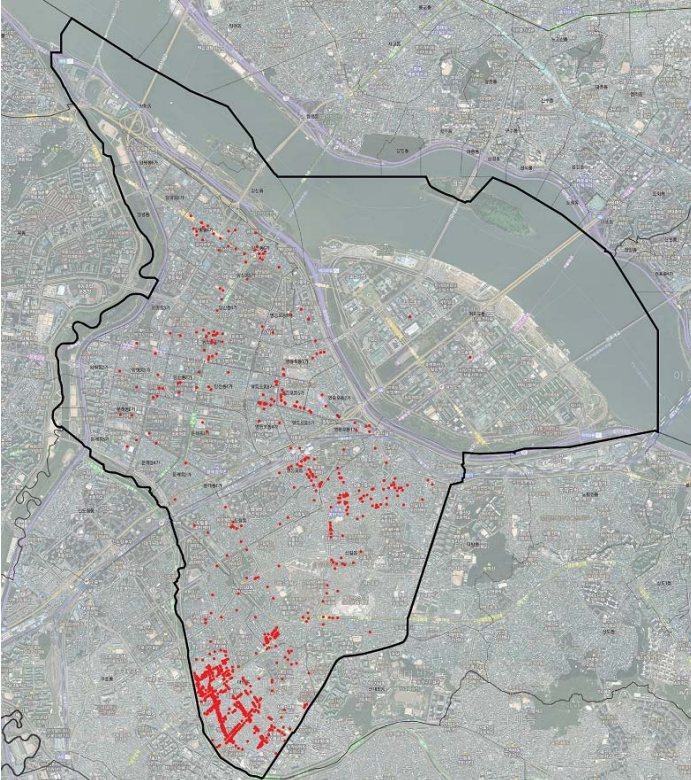
가. 중국동포 관련 산업자산 분포

- 서남권 5개구별 중국동포 관련 산업자산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4〉 서남권 5개 구별 산업자산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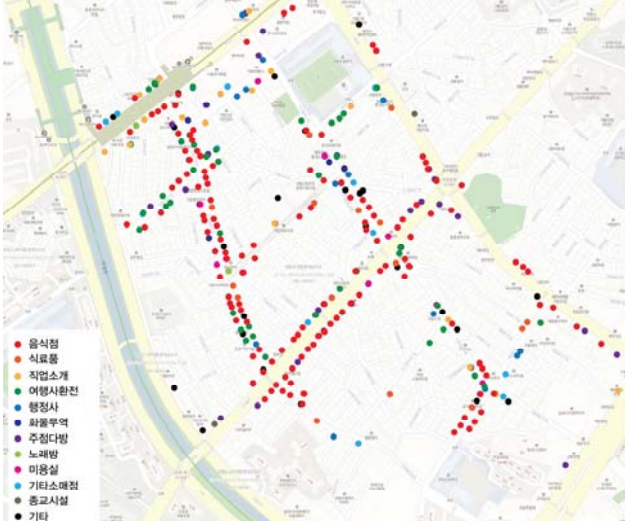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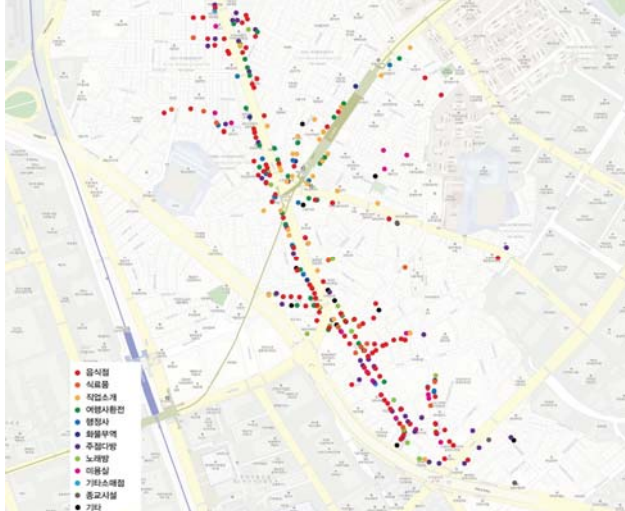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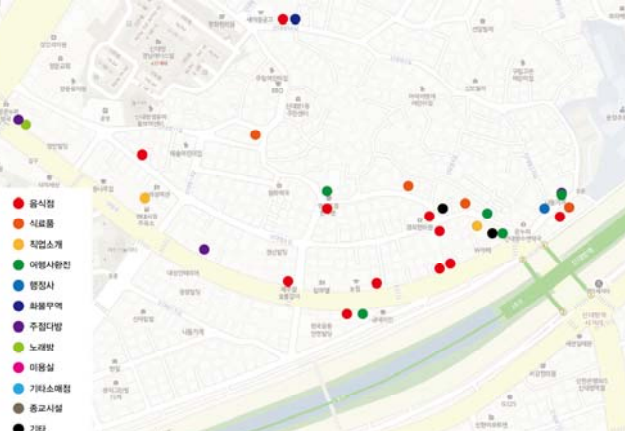
지역	중국동포 산업자산 분포현황	주요 상점 (상위 3개 업종)
관악구		음식점 식료품 여행사 환전
구로구		음식점 주점다방 여행사 환전
금천구		음식점 식료품 직업소개소

〈표 V-4〉서남권 5개 구별 산업자산 분포도

지역	중국동포 산업자산 분포현황	주요 상점 (상위 3개 업종)
동작구		음식점 여행사 환전 식료품
영등포구		음식점 주점다방 여행사 환전

○ 서남권 5개구 내, 주요 중국동포 밀집지의 산업분포는 다음과 같음.



〈표 V-5〉 재외동포 주요 체류자격 현황

주요지역	중국동포 관련 산업 분포현황	주요 상점 (상위 3개 업종)
대림2동 일대		음식점, 여행사 환전, 주점다방
가리봉동 일대		음식점, 주점다방, 여행사 환전
신대방역 주변		음식점, 여행사 환전, 식료품

나. 중국동포 밀집지역 상권조사

- 대표적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대림2동 대림중앙시장 주변’ 과 ‘남구로역 주변 가리봉동’ 의 상권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6〉 재외동포 주요 체류자격 현황

구 분	대림2동 대림중앙시장	남구로역 주변 가리봉동
<p>분석 대상범위</p> 		
<p>분석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이 가장 많이 분포하며, 소매점의 경우 256개의 점포 신설 • 최근 3년간 중국동포 관련 업종 2배 이상 증가 •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업종추이 분석결과 모든 업종분야 증가추세 • 매출추이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이 가장 많이 분포하며, 소매점을 중심으로 ‘제조’, ‘도매/유통/무역’ 업종 증가추세 • 최근 3년간 중국동포 관련 업종 2배 이상 증가 • 대상지는 남구로역을 중심으로 주변 배후주거지역 넓게 분포함. 따라서 주변 상권이 매우 활성화
<p>유동인구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 평균 45,354명의 보행량 • 상권에 기인한 유동인구 • 40~50대 비율 높음 • 18~21시의 활동 활발 • 요일별과 월별 유동인구 비율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 평균 49,119명의 보행량 • 주거지에 기인한 유동인구 • 20~50대 비율 높음 • 12~21시 활동 활발 • 주말보다 평일에 유동인구 비율 높음

1) 유동인구는 SKT휴대전화 통화량을 바탕으로 전국 50M셀로 추정된 유동인구수 정보, 분석영역이 중심에서 300M를 넘으면 중심 300M 내 유동인구를 분석, 유동인구는 해당월의 일평균 추정 유동인구 데이터.

3. 문화자산

가. 문화자산

- 서남권 지역은 서울의 다른 지역들보다 역사문화적 자산의 분포가 적으나, 서울의 근현대 역사를 대표하는 산업적 자산들에 대한 분포가 다소 높은 편임
 - 구로와 금천지역을 중심으로 G밸리 등의 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인지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관련 근현대 문화유산들도 다수 밀집되어 있어 산업관광자원으로의 활용가치가 높은 편
- 서남권 문화시설은 영화관을 제외하고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화랑 등의 분포는 매우 저조하며, 국립이나 공립박물관과 같은 규모가 큰 박물관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
 - 공공도서관이나 지역문화시설, 마을사업 등 생활문화시설은 어느 정도 보유하였지만 시설별 격차가 큼
 - 축제 유형에는 지역생활축제, 역사문화축제, 지역관광축제 등이 있는데, 서남권 개최 축제는 대부분 지역생활축제
- 서남권지역에는 대림신길 차이나타운, 조선족 마을, 봉촌 차이나타운, 독산차이나타운 등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분포
 - 외국인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로 대부분 중국동포 밀집지역과 일치

나. 관광여건

- 서남권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전체 서울방문 관광객의 10.3%로 비중이 매우 낮아 관광객들의 방문 빈도는 매우 낮은 상황
 - 서남권의 경우 영등포구를 제외한 다른 구는 선호 방문지로 전혀 선택되고 있지 않음
- 서남권은 관광사업체 비중이 높지도 낮지도 않아, 기본적인 관광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으며, 영등포구 및 강서구, 구로구의 경우 관광사업체가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음
 - 서남권은 전체 호텔업소 18.6%가 분포하고 있으며, 영등포 및 G밸리 일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호텔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 그러나 중국 동포 밀집지역 주변은 숙박 인프라 여건은 좋지 않은 편으로 관광객 유입을 위한 여건 마련 필요

다. 문화관광 여건 시사점

- 관광객 밀집지역은 아니지만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만한 다양한 자산 보유
 - 중국 동포 밀집지역은 새로운 문화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보유
- 특히 구로 및 금천구의 경우 서울시 도시개발 과정 중 근현대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분포가 비교적 다수가 밀집하고 있는 특징 보유
 - 서울시의 근현대 역사문화자산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이나 산업체 비중도 남아있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
- 서남권 문화자산 대부분은 지역민을 위한 행사나 시설 위주로 관광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
 - 관광자원 및 기본 인프라는 대부분 생활형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접근이나 활용도 부족

4. 공간자산

가. 주요교통망

- 서울 서남권에는 수도권 지하철 5개 노선, 총 52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며, 이 가운데 남구로역, 대림역, 신대방역 주변으로 중국동포 커뮤니티 형성
- 서남권 내 주요도로인 남부순환로, 시흥대로, 서부간선도로 등이 서울 서북부와 강남권, 인천시, 경기지역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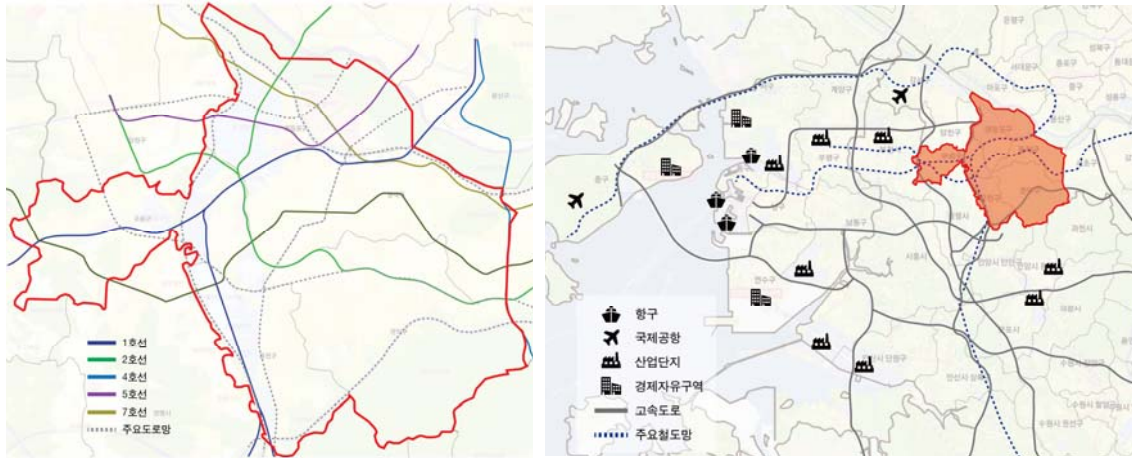
나. 광역적 공간자산

- 서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권의 주요 산업단지가 고속도로망과 철도를 통해 연계
- 2015년 기준, 한해 입국 중국동포의 90%가 서울 서남권 지역에서 가까운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인천항을 통해서 입국

다. 서남권 용도지역 현황

- 서남권 지역은 서울시 공업지역 면적비율에 비해 높은 공업지역 비율을 보임
- 서울시 공업지역 면적비율은 3.30%인 것에 비해 구로구 21.24%, 금천구 31.68%, 영등포구 20.63%를 보임

〈그림 V-4〉 서남권 지역 주요 교통망 및 광역적 공간자산



5. 자산 활용 방안: 참여형 지역 관리

-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관련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참여형 지역관리 방식이 적절함
- 참여형 지역관리 방식은 지역발전 계획 시작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협의함
- 실거주자의 입장이 반영되어 정부의 지역발전 계획 추진에 정당성이 확보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됨
- 본 연구는 서남권 지역활동가와 전문가가 함께 약 4개월간 지역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의견을 수집하는 워크숍 개최를 통해 참여형 지역관리 방식을 실행함

〈표 V-7〉 워크숍 주요 결과

분야별	주요 결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문제는 결혼이주 여성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저소득 이주노동자는 자녀교육에 신경을 쓸 여유가 부족함 자녀를 둔 학부모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동포들이 한국 교육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선주민과 동일한 대우는 물론 '결과'의 차원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기를 바람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주 여성들은 직장 내 따돌림 등 직장동료와의 갈등을 문제 삼고 있음 결혼이주 여성들은 창업을 원하지만 정보/자본/경험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구로, 금천 지역 이주민의 경우 동포사회 관련 업종과 관련된 창업경험, 창업경로 등을 다양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함 이주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이나 4대 보험 가입 시기 같은 문제에 더욱 민감함
생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포전용의 문화공간에 대한 요구와 한국인 선주민과의 공동 공간에 대한 요구가 공존함 한국인 선주민의 이용장소에 동포들이 합류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낌 한국에 이주 후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함 중국동포 밀집지역이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중국에서의 생활환경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현재 생활에 만족함 중국과 비교해 현재 생활장소가 깨끗하고 쓰레기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함 장기거주자나 타 지역에서 생활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자신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인정함 금천구가 시행하는 재활용정거장 같은 가시적인 시설, 주민 교육, 강력한 단속 등 노력을 하면 쓰레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외부인의 인식과 달리 중국동포는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이 안전하다고 느낌 CCTV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함 생활정보를 얻기 위해 젊은 층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노년층은 동포신문을 활용함
행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동포를 약자로 인식하고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음 (새터민과 혜택 비교 등) 행정제도 자체에 대한 경험과 경험 시기에 따라 참석자의 이해 정도가 다름 개인적으로 특정 비자/영주권 등을 취득했을 시기에 따라 경험이 다르고, 직접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해 들어 한국의 행정/제도에 대한 오해 있음
편견/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는 입국동포를 위한 교육은 비자취득시 받는 교육이 전부임 과거에 비해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 놓고 있음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동포는 국내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화 경험이 필요함 경찰/공무원 등이 직권으로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함
중국동포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동포 단체 구성을 위해서는 지역 내 일정 수 이상의 동포가 거주해야 한다고 인식함 동포단체의 경우 업종/이익 등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지역 중심의 단체가 꾸려지는 중 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음 단체 간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외부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음
현지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이주 1세대 때에 비해 현재는 한국이주의 매력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희망자 있음 한국에서의 상황이 불확실해서 현지에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 해놓고 온 경우가 많음
참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적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지역개발 시 개개인 보다는 단체를 통해 참여하는 것이 좋음 차이나타운형의 개발에는 반대하고, 한국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종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에서 교육 시기와 정도 및 한국생활의 방식과 정도에 따라 한국에 대한 태도와 사회화의 정도가 다름 내부적으로 중국 내의 지역감정이 한국으로 전이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음

6. 소결

가. 낙후화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

- 서울 서남권 인적자산 분석결과, 중국동포의 밀집이 한국 선주민의 이주를 증가시키고 지역을 낙후시킬 가능성이 높음
 - 서울 서남권 거주 중국동포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인구라는 사실을 활용하여 중국동포 인적자원개발 및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전개가 필요함
 - 서남권의 산업자산 분석결과, 중국동포 관련 상권은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특화산업이 미비하며 중국동포 관련 산업의 무분별한 증가 및 지역 산업 잠식은 서남권 지역의 전통 제조업의 소멸과 도시 낙후 가능성을 내포함
- 반면에 서남권의 풍부한 중국동포 관련 산업을 밀집지역의 특성과 결합하여 특화한다면 지역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
 -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 필요
- 서남권의 문화자산 분석결과, 미래유산이 다수분포하고 산업노동 분야와 시민생활 분야의 비중이 높아 근현대 서울의 역사 및 생활상을 통해 서울의 변천사를 담아낼 수 있는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나 외부로부터 방문객을 유도할만한 시설들은 매우 취약함
 - 서남권의 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프라 및 생활여건 개선하여 중국동포 밀집지역이라는 차별화된 문화로서 지역특화 문화관광 촉진 필요
 - 가산디지털단지 및 구로구의 G밸리 주변의 산업체를 활용하고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과의 무역을 연계하는 산업관광 확대 가능
- 서남권의 공간자산 분석결과, 풍부한 지하철 노선이 있고 서울 북부와 강남권, 인천시, 경기지역과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경기도권의 주요 산업단지가 고속도로망과 철도로 연계되어 있음
 -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양호하나 타지역에 비해 공업지역 비율(금천구 31.68%, 서울시 3.30%)이 높게 나타나 주거환경이 낙후될 가능성 내포

나. 지역자산 SWOT분석

〈표 V-8〉 지역자산을 통한 서울 서남권 SWOT분석 및 발전전략

		강점		약점	
		내부환경	S1	경제활동인구 중심의 풍부한 인적자원	W1
외부환경	S2	중국동포 관련 풍부한 산업자원	W2	서남권 지역특화산업 미흡	
	S3	중국동포밀집지라는 차별화된 문화자산 보유	W3	한국인 선주민의 지속적 감소	
	S4	국제도시로의 유리한 입지	W4	취약계층의 지역적 편중	
기회		SO 전략		WO 전략	
O1	미래 국가경쟁력으로 관광산업 부각	S2S3O1	지역특화 문화관광상품 확대 (예, 서래마을, 용산, 동부이촌동 등)	W1W2O1O2	지역특화 산업관광 육성
O2	새로운 문화관광수요 증대			W3W4O3	공생적 지역개발모델 개발
O3	서울시 차원의 상생경제 및 균형발전 강조	S2S4O1O3	세계문화관광지역 개발		
위협		ST 전략		WT 전략	
T1	중국동포와 한국인 선주민의 갈등 심화	S1T1T2T3	CPTED 적용을 통한 잠재적 감시가능성 확보	W2T2	지역특화 산업관광 육성
T2	우범지대라는 부정적 지역 이미지	S1T1T4	경제활동인구 유치로 인구 감소 극복	W1W3T1	지역주민 생활안정사업
T3	범죄율 증가			W1W2T3	공공질서 유지 및 생활 안전환경 구축사업
T4	복지수요증가로 재정악화	S2S3T2T4	신경제성장모델로 새롭고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 개발	W3T2	선주민과 이주민 갈등 해소 사업

VI.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맞춤형 사업

1. 지역주민 생활안정 사업

가. 기본방향

-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약점-위협(WT) 전략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요인 제거임
- 다음으로 생활안정을 진흥하는 것으로 보다 개선된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중장기적으로 강점-기회(SO) 전극대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함

나. 맞춤형 사업

서울 서남권 지역주민 생활안정 사업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동포와 선주민을 동일한 기준으로 공평하게 지원하는 사업방식 • 중국동포는 시혜대상이 아니라 정책 입안, 실행, 평가에 참여하는 주체 • (시)정부-지역주민-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치 • 지역사회 현안문제 우선 해결, 중장기적 과제의 단계적 연차적 추진 	
단계	중점과제	세부과제	내용
1	취약계층 긴급구호 지원체계 정비	쉼터 확대 및 기능 강화	• 쉼터에 정보수집, 상담교육, 의료서비스 기능을 더해 종합생활지원센터로 기능 강화
		찾아가는 주말 이동상담 서비스 운영	• 평일 글로벌센터 방문이 어려운 중국동포를 위해 중국동포가 특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말을 이용한 월 2회 생활상담 서비스 실시
		긴급 생계지원 확대	• 긴급생계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 '서울시 이민자 사회통합기금' (가칭) 마련
		긴급 의료서비스 확대	• 긴급의료지원서비스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 외국인을 위한 대안적 긴급의료지원체계 정비
		긴급 장례서비스 확대	• 도봉구 등의 무연고노인 장례서비스 벤치마킹 • 무연고중국동포에게도 장례서비스 제공
		이웃 도움 네트워크 제공	• 반상회, 지역주민협의회, 자조모임 등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독거 한국인선주민과 중국동포이주민 지원

뒷장에 계속

2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저비용 임대주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통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상가 전월세 폭등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권 단위 상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대료&권리금에 대한 합의 도출
		노후불량주택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재정 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확대
		생활환경 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환경 미화와 치안 유지를 위한 자발적 결사대 및 자율방범대 결성 거리와 건물에 화단 조성
	지역주민 취업지원 확대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인 관광객 수요(여행업, 관광숙박업, 의료관광업, 문화관광 해설분야 등)에 대응하는 판매상담사 육성
		사회적 일자리 및 협동조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 통역/상담, 취약계층/중도입국자녀 보충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범죄예방교육, 노인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발굴 중국동포/한국인선주민 공동육아/협동조합 구성 운영, 도시락 제작과 배달, 카페운영 등
		취약계층 취업알선 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서비스 강화 서남권 글로벌센터, 복지관의 중국동포 취업정보 및 알선 서비스 확대/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역주민 고용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의 서남권 투자시 영주권을 부여하면서 지역주민 고용의 무화 요구
	여가문화 시설 확충	문화스포츠 센터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통합형 사회체육 시설과 프로그램 확충
		노인복지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동포노인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경로당 확충
3	중국동포 자산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 육성	재래시장의 융복합문화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동포의 문화와 자산을 활용해 특화된 상권으로 개발 중국문화+조선족문화+현대한국문화의 융복합문화지대 형성
		음식문화축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주요명절이나 국경일 중심으로 음식문화축제 개최
		한·중 무역지구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인/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세계무역지원센터(KOTRA와 유사한 기능) 건립
	역사와 문화가 있는 글로벌 상생공간 조성	박물관·체험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민족이주사박물관, 산업박물관, 세계무역지원센터 등 유치
		중국동포 문화거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서남권 5개구-중국동포단체 협치를 통한 서남권 중국동포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서울 서남권 5개 자치구 거주민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한국인선주민과 중국동포 이주민 상리공생을 위한 문화거리 조성 중국동포 문화거리에서상설 공연과 길거리 전시를 통한 쉽고 재미있는 중국문화 체험 기회 제공
		스토리텔링 북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동포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주민의 정착이야기 수록

앞장에서 계속

2. 공공질서 유지와 생활안전 환경구축 사업

가. 기본방향

- 한국인 선주민 사이에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은 치안 불안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나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 위반이 많이 발생하여 한국인 선주민의 불만이 많음
 - 실제로 서울 서남권에 속한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의 범죄율은 서울시 평균범죄율 상회
 - 영등포구는 서울에서 외국인 관련 범죄발생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
- 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불평과 비난은 지역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공질서 유지와 생활안전 환경 구축이 시급함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순위와 선후관계를 고려한 단계적 추진 필요
 - 제1단계는 지역안전을 위한 주민참여 체계 구축
 - 제2단계는 공공질서 및 치안유지 환경 조성. 즉, 범죄예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설계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 도입
 - 제3단계는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를 포함한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안전 환경 조성

나. 맞춤형 사업

서울 서남권 공공질서 유지와 생활안전 환경구축 사업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안전을 위한 주민참여 체계 구축 공공질서 및 치안유지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안전 환경 조성 	
단계	중점과제	세부과제	내 용
1	범죄예방 기반 조성	지역안전 관련 기초자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 생활안전, 재해, 재난 등 안전관련 기초조사 실시를 통해 지역별 세부 데이터 수집 기초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도시공간구조, 공간이용, 기반시설 및 개별건축물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전평가 시스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 안전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 및 종합적 고찰 생활안전 위기 시 대응방안과 피해 평가 및 예측을 위한 가이드라인 & 프로그램 개발
		안전마을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 안전책임자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체계 구축	지역주민 참여의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안전을 위한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홍보 및 주민참여 방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단위, 구역단위 주민 자치모임 지원
		마을단위 민관 협업체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공동체, 자자체, 지역경찰의 연대를 통한 지역 방범 체계 구축 안전구역과 위험구역을 표시한 마을안전지도 제작 및 배포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 간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지역안전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됨
		중국동포 자율방범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동포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조직 기존의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가 수행하던 방법순찰 활동을 넘어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기초질서 캠페인 및 위반 단속활동
		안전마을 건설 전문 컨설팅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안전 및 범죄분야의 민간전문가 위주로 전문컨설팅단 구성
	2	치안유지 환경 조성	스마트 범죄예방환경 설계(CPTED) 시설 확충 가로경관 디자인 개선
공공질서유 지 환경 조성		공공장소 낙후시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지역 애착 증진 및 영역성 강화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 다언어 경찰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홍보안내문 배부 각종 중국동포 관련 사건과 민원에 대응하고 적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
3	생활안전 환경 조성	생활안전 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S국민안심서비스 가입/활용, 학원차량 승강장 설치, 보행자 중심 네트워크 조성 등
		안전마을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보시설, 위험구역 차단시설 등 안전인프라 구축 안전지도 작성, 교육·훈련,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로, 대피장소 지정 및 현황도 작성
		기존 낙후시설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후·노후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조사·정비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정기적 청소와 검사·보수
		도로 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차선 지정, 도로의 가변형 비상체계 등 다각적 검토와 활용 협소한 주거지역 내부 도로환경에 대한 디자인 개선
		취약계층 생활지역 안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통행이 잦은 지역, 생활범죄가 잦은 지역에 대한 안전 강화

3. 차세대 교육지원 사업

가. 기본방향

- 중국동포 자녀만 참여하는 분리교육의 장단점과 한국인 자녀와 중국동포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두 가지 방식의 사업을 함께 추진함
 -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일반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똑 같은 교육’ 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21.7%, ‘동포 자녀를 포함한 외국인 자녀들만을 위한 별도의 교육’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8% 비슷한 수준
 - 온정주의 담론을 넘어 글로벌 인적자원 담론을 지향하는 차세대 교육사업 개발
 - 온정주의 담론: 한국사회의 이주민은 소외계층이며, 이주민 자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기 쉽기 때문에 정부의 교육 지원 필요
 - 글로벌 인적자원 담론: 이주민 자녀는 한국과 출신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므로, 이들의 국제이해능력을 신장시켜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정부 정책 필요
- 우선 중국동포 자녀의 분리교육에 역점을 두고 연후에 중국동포와 일반 한국인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순차적 진행
 - 단기사업으로 중국동포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한국사회 적응과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 개발 및 운영
 - 중장기 사업으로 중국동포 자녀와 일반 한국인 자녀를 함께 배려하는 지역주민 자녀 이중언어 교육 지원 및 직업훈련 확대

나. 맞춤형 사업

서울 서남권 차세대 교육지원 사업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질 좋은 교육 • 중국동포 자녀만을 위한 분리교육과 한국인 자녀와 중국동포 자녀가 함께 공부하는 통합교육 병행 	
단계	중점과제	세부과제	내용
1	중도입국 자녀 초기적응 지원	중국어로 진행되는 한국어교육 지원	•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중국동포 미성년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도입국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상담교실 개설	• 입국 초기 중도입국 자녀가 부모가 함께 상담교실에 참여하면서 안정감을 갖고 한국생활에 적응토록 함
		중국어로 진행되는 레인보우스쿨	• 서남권의 중도입국 자녀의 대다수가 중국어 화자임을 고려해 중국어로 진행되는 레인보우스쿨 운영
		중국동포 미성년 자녀 초기적응프로그램 의무화 시범사업	• 서남권 거주 중국동포 자녀에 대해 1년간 시범사업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시행
	중국동포 자녀 기초학력 향상	중국동포 유학생 멘토링 서비스 지원	• 중국동포 유학생을 서남권 중국동포 자녀의 멘토로 선발하여 중국동포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도록 함
		복지관을 통한 중국동포 자녀 보충학습 프로그램	• 중국동포 자녀의 학교 공부를 보완하는 보충학습프로그램을 복지관에 개설하여 학업성취도 향상 지원
		중국동포 자녀 돌봄 공부방 개설/지원	• 중국동포 자녀의 방과 후 안전과 공부를 책임지는 돌봄 공부방 개설 지원
	중국동포 자녀 진학지도 강화	공교육 진학상담 서비스	• 출입국사무소에서 중국동포 자녀의 입국 과정부터 국내 공교육 기관 진학 안내를 통해 공교육 진학을 제고
		상급학교 진학상담 서비스	• 입국후 일정기간 경과 자녀에게 서남권글로벌센터를 통해 상급학교(고등교육과정) 진학상담 제공
	2	지역주민 자녀 한·중 이중언어 능력 향상	한·중 이중언어 학교 운영
한·중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 자녀의 이중언어 학습의 욕 고취 • 일반 한국가정 자녀도 참가를 허용하여 이중언어 학습 매진 분위기 조성
3	지역주민 자녀 직업훈련 기관 확대	한·중 무역아카데미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무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무역아카데미를 설립 • 한국어, 중국어 외에 영어, 일본어, 경영학 수업을 통해 엘리트 무역경영인을 육성
		구립 직업학교 확대	• 상급학교 진학에 관심이 없거나 조기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을 서남권에 설립

4. 선주민과 이주민 갈등해소 사업

가. 기본방향

- 가장 우선적 과제로 현안 갈등 민원을 해결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교육 강화를 설정함
- 그 다음으로는 갈등을 초래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인 편견과 고정관념 감소를 위해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과 교류협력 기회를 확대함
- 마지막 완성단계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이 공존하고 시너지를 발휘해서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제도화를 추진함

나. 맞춤형 사업

서울 서남권 선주민과 이주민 갈등해소 사업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현안 갈등 민원을 해결하고 향후 갈등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 갈등의 근본원인인 편견과 고정관념 감소를 위한 상호이해 교육 및 교류협력 강화 •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달성을 위한 역량 강화와 제도화 	
단계	중점과제	세부과제	내용
1	현안 갈등 민원해결 및 갈등 예방	'사회통합 코디네이터 및 갈등조정담당관'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차원에서 갈등 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갈등 예방을 위한 장치로 '사회통합 코디네이터 및 갈등조정담당관' 임명
		갈등조정 및 예방 매뉴얼 개발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주민과 이주민 간에 자주 발생하는 갈등사례를 수집하고 유형화하고 조정과 해결사례에 기초한 매뉴얼 개발
		다언어 행정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정보 부재에서 오는 사회갈등 완화 • 중국동포 밀집지역 학교의 중국어 통신문 등
2	상호이해 증진 및 교류 협력 확대	지역주민 상호이해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교육 강사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인 선주민의 중국동포에 대한 이해교육 강화 • 중국동포 대상 한국 사회문화 이해 교육 강화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중국동포 문화이해 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정부출연기관 등 서울 서남권 소재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국동포 문화교육 실시 • 중국동포 역사 및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집합교육을 통해 공공기관 종사자의 중국동포 문화 존중 의식 제고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웹툰 제작·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동포 이주사, 생활문화, 한국에서 겪는 애로사 등을 소재로 웹툰을 제작하여 일반인에게 배포 • 행정포털 및 서울시 '내손안의 서울', 서울, 글로벌센터 홈페이지, 한울타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웹툰북으로 제작하여 서울 서남권 자치구 민원실, 서울시 민원실, 시민청 등에 배포
		중국말-조선말-한국말 대응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말, 조선말, 한국말의 기본적 차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선주민-이주민 교류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동포와 한국인 선주민이 자녀교육 관련 의견 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공생교육위원회' (가칭) 설치 • '한중언어아카데미', '한중합창프로젝트' 등을 통해 교류협력 확대

뒷장에 계속

3	서울시-지자체-지역주민 협치강화	개방적 참여형 협치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의견수렴을 넘어 이주민이 사업의 기획과 집행, 평가 영역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체계 구축 • 현행 서남권민관협의체에 전담 상근인력 배치로 상설화
		중국동포 주민대표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리봉동, 대림동처럼 작지만 실제적인 지역단위에서 중국동포들이 지역주민으로 참여하는 회의체로 중국동포 주민대표자회 구성 • 중국동포를 통장이나 동장으로 임명하는 방안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통합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동포를 별도의 제도와 시설 운영보다는 기존의 사회복지 체계에 편입시켜 일관되게 이민자통합정책 운영 • 이를 담당할 적정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임
	중국동포의 사회통합 역량 강화	중국동포 단체와 지도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업을 역량이 검증된 단체들로 확대 지원 • 주요 중국동포단체의 단체장 선거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해서 공정선거 유도
		지역지도자 양성 아카데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동포와 한국인 선주민의 지역지도자를 양성하여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중국동포 싱크탱크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남권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해결 및 한국전체 중국동포 발전과 사회통합, 중국동포를 매개로 한 한국과 중국의 동반성장을 염두에 둔 싱크탱크 발족
		중국동포 언론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동포 언론이 사회통합능력을 발휘하도록 역량강화 지원

앞장에서 계속

Ⅶ.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장단기 발전 방안

1. 기본방향

가. 비전과 정책목표

-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낙후이미지와 치안문제를 극복하고, 이 지역을 국제적인 문물교류 교두보로 발전시키는 발전 방향을 담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국제문화지구’ 라는 비전 설정
- 살기좋은 지역 건설을 위한 종합적 정책목표로 생활안전, 안전, 교육, 사회통합 등 4대 목표 설정

〈표 Ⅶ-1〉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비전 및 정책 목표

비전	안전하고 풍요로운 국제문화무역지구	
	정책 목표	중점 과제
정 책 목 표 및	생활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긴급구호 지원체계 정비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지역주민 취업지원 확대
	주민생활안전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문화시설 확충 • 융복합산업의 육성과 국제화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확충 • 글로벌 상생공간 조성
중 점 과 제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마을 범죄예방 기반 조성 •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체계 구축
	공공질서 유지와 생활안전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안 유지 환경 조성 • 공공질서 유지 환경 조성 • 생활안전 환경 조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 중국동포 자녀 초기적응 지원 • 중국동포 자녀 기초학력 향상
	글로벌인재 양성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동포 자녀 진학지도 강화 • 지역주민 자녀 한·중 이중언어 능력 향상 • 지역주민 자녀 직업훈련 기관 확대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해결과 예방 • 상호이해 교육 강화와 교류 협력 확대 • 서울시-지자체-지역주민 간의 협치 강화 • 중국동포의 사회통합 역량 강화
	선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해소와 예방	

나. 기본원칙

- 주민과의 협치: 지역주민이 정책 대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
- 보편성: 한국인 선주민과 중국동포를 구분하지 않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는 사업 개발
- 통합성: 중국동포만을 위한 별도의 제도와 시설 운영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을 위해 개발한 제도에 중국동포가 차별 없이 수용되는 통합사업 개발
- 지속성: 정부의 지원으로 지역개발 사업의 기반을 다시고, 이후 지역주민이 스스로 운영하는 사업관리 방식
- 확장성: 하나의 사업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낳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개발

2. 추진전략

가. 중점과제 수행을 위한 3단계 전략

- 서울 서남권 SWOT에 기반하여 3단계로 추진
 - 서울 서남권의 약점-위기(WT)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과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1단계부터 시행
 - 서울 서남권의 강점-위기(ST)요인 혹은 약점-기회(WO)요인을 관리하는 역점을 둔 과제를 2단계에 시행
 - 강점-기회(SO)요인을 극대화하는 역점을 둔 과제를 3단계에 시행
- 1단계: 단기(~2018)
 - 생활안정 영역: 취약계층 긴급구호 지원체계 정비
 - 안전 영역: 안전마을 범죄예방 기반 조성,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체계 구축
 - 교육 영역: 중도입국 중국동포 자녀 초기적응 지원, 중국동포 자녀 기초학력 향상, 중국동포 자녀 진학지도 강화
 - 사회통합 영역: 선주민-이주민 갈등관련 민원 접수 및 긴급 해결, 기초질서 교육 실시 및 위반사례 단속, 갈등예방 교육 강화
- 2단계: 중기(~2020)
 - 생활안정: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역주민 취업지원 확대, 여가문화 시설 확충
 - 안전: 치안유지 환경 조성, 공공질서 유지 환경 조성
 - 교육: 지역주민 자녀 한·중 이중언어 능력 향상

- 사회통합: 상호이해 증진 및 교류 협력 확대
- 3단계: 장기(~2025)
 - 생활안정: 중국동포 자산을 활용한 융복합산업 육성, 역사와 문화가 있는 글로벌 상생공간 조성
 - 안전: 생활안전 환경 조성
 - 교육: 지역주민 자녀 직업훈련 기관 확대
 - 사회통합: 서울시-지자체-지역주민 협치 강화, 중국동포의 사회통합 역량 강화

〈표 Ⅶ-2〉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중점과제의 단계별 수행 계획

정책목표		중점과제		
		1단계(~2018)	2단계(~2020)	3단계(~2025)
생활안정	주민생활안정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긴급구호 지원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지역주민 취업지원 확대 • 여가문화 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동포 자산을 활용한 융복합산업 육성 • 역사와 문화가 있는 글로벌 상생공간 조성
안전	공공질서유지와 생활안전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마을 범죄예방 기반 조성 •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안유지 환경 조성 • 공공질서 유지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안전 환경 조성
교육	글로벌인재양성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 중국동포 자녀 초기적응 지원 • 중국동포 자녀 기초학력 향상 • 중국동포 자녀 진학지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자녀 한·중 이중언어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자녀 직업훈련 기관 확대
사회통합	선주민과 이주민의 갈등해소와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주민-이주민 갈등 민원 해결 및 갈등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이해 증진 및 교류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지자체-지역주민 협치 강화 • 중국동포의 사회통합 역량 강화

나. 세부사업 수행을 위한 연도별 로드맵

- 사업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구분
- 시작 시점이 같더라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부 사업은 단기간에 종료될 수 있고, 일부 사업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

〈표 VII-3〉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맞춤형 세부사업 연도별 로드맵: 생활안정

중점과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취약계층 긴급구호 지원체계 정비	쉼터확대 및 기능 강화								
	찾아가는 주말이동 상담 서비스 운영								
	긴급 생계지원 확대								
	긴급 의료서비스 확대								
	이웃도움 네트워크 제공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저비용 임대주택 확대								
	주택/상가 전월세 폭등 규제								
			노후불량 주택정비						
			생활환경 미화						
지역주민 취업지원 확대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사업 전개						
			사회적 일자리 및 협동조합 확대						
			취약계층 취업알선 서비스 개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역주민 고용 연계						
여가문화 시설 확충			문화 스포츠 센터확충						
			노인복지 시설 확충						
중국동포 자산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 육성					재래시장의 융복합문화 발굴				
					음식문화축제 활성화				
					한·중 무역지구 건설				
역사와 문화가 있는 글로벌 상생공간 조성					박물관·체험관 건립				
					중국동포 문화거리 조성				
					스토리북 제작		스토리북 제작		스토리북 제작

〈표 Ⅶ-4〉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맞춤형 세부사업 연도별 로드맵: 안전

중점과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안전마을 범죄예방 기반 조성	지역안전 관련 기초자료 구축								
	안전마을 시스템 마련								
	안전마을 협력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안전마을 체계 구축	지역주민 참여의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마을단위 민관 협업체계 구성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성								
	중국동포 자율방범대 운영								
	안전마을 건설 전문 건설팀단 운영								
치안유지 환경 조성		CEPTED 시설 확충							
		가로경관 디자인 개선							
공공질서 유지 환경 조성			공공장소 낙후시설 개선						
			생활 폐기물 효율적 처리						
			다언어 경찰서 운영						
생활안전 환경 조성					생활안전 마을 조성				
					안전마을 인프라 확충				
					정기적인 낙후시설 조사·보수 제도화				
					취약계층 생활지역 안전 강화				

〈표 VII-5〉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세부과제의 연도별 로드맵: 교육

중점과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중도입국 중국동포 자녀 초기적응 지원	중국어로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 지원								
	중도입국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상담교실 개설								
	중국어로 진행되는 레인보우 스쿨								
	중국동포 미성년 자녀 초기적응 프로그램 의무화 시범사업								
중국동포 자녀 기초학력 향상	중국동포 유학생 멘토링 서비스 지원								
	복지관을 통한 중국동포 자녀 보충학습 프로그램								
	중국동포 자녀 돌봄 공부방 개설/지원								
중국동포 자녀 진학지도 강화	공교육 진학상담 서비스								
	상급학교 진학상담 서비스								
지역주민 자녀 한·중 이중언어 능력 향상	한·중 이중언어 학교 운영								
	한·중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지역주민 자녀 직업훈련 기관 확대	한·중 무역 아카데미 설립								
	구립 직업학교 확대								

〈표 Ⅶ-6〉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맞춤형 세부사업 연도별 로드맵: 사회통합

중점과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현안 갈등 민원 해결 및 갈등 예방	사회통합 코디네이터 및 갈등조정담당관 운영								
	갈등 조정 및 예방 매뉴얼 개발과 교육								
	다언어 행정서비스 확대								
상호이해 증진 및 교류 협력 확대			지역주민 상호이해 교육 강화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중국동포 문화이해 교육 시행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웹툰 제작·배포						
			중국말-조선말- 한국말 대응 프로그램 개발						
		선주민-이주민 교류협력 확대							
서울시- 지자체- 지역주민 협치 강화					개방적 참여형 협치체계 구축				
					중국동포 주민 대표자 회의 구성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통합 역량 강화				
중국동포 사회통합 역량 강화					중국동포 단체와 지도자 역량 강화				
					지역 지도자 양성 아카데미				
						중국동포 싱크탱크 발족			
					중국동포 언론기능 강화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황 조사 연구

발행인: 서울특별시

발행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발행일: 2016년 12월

연구기관: IOM이민정책연구원

ISBN: 979-11-5621-999-6 93330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